



우수콘텐츠잡지
2023

ART BUSAN MONTHLY

예술부산

2024·4
VOL.226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2024 부산예술회관 기획
문화가 있는 날

예감

;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2024년 4월 - 11월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전시장

04.03(수) 19:00 스텝아트컴퍼니 [스트릿 매지션]

04.24(수) 19:00 VIP 타악양상블 [타악하기 좋은 예감:藝感]

06.12(수) 19:00 디어뮤직컴퍼니 [향기로운 클래식 '꽃으로 피우는 음악정원']

06.26(수) 19:00 원데이아트컴퍼니 [놀 신! 놀 신!]

7.22(월)~7.28(일) 10:00~ 18:00 (사)한국서각협회 부산지회 [태고에서 현대로 展]

07.31(수) 19:00 40 STAIRS' NS TOUR BAND [BUSAN LOVE FESTIVAL]

09.25(수) 19:00 JM양상블 [클래식으로 만나는 주토피아]

10.30(수) 19:00 세레나데 아트컴퍼니 [뮤지컬 콘서트]

11.26(화)~12.1(일) 10:00~ 18:00 부산여류사진가회 [부산의 골목을 찾다 展]

11.27(수) 19:00 운사당(정자경 가야금병창아티스트) [K-MUSIC과 함께 하는 가을밤의 판타지]

APRIL

4

공연장 / 전시장 / 회의실 / 예술아카데미 / 야외광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웰빙댄스 10시~11시30분(4층연습실)	2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김정현의 팜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공연장)	3 가곡교실 12시~13시50분(2층연습실) 아랑고고장구 14시~15시30분(2층연습실) 방송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문화가있는날_스텝아트컴퍼니_ 스트릿 매지션 오후 7시, 051)631-1377	4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한국무용교실 14시~17시50분(4층연습실) 사진아카데미 초급반 10시~12시(4층 회의실) 부산문인협회_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5	6 장인숙무용단_ 이슬라 최현경의 춤, 오후 3시, 010-5034-2852
7	8 웰빙댄스 10시~11시30분(4층연습실)	9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김정현의 팜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공연장)	10	11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한국무용교실 14시~17시50분(4층연습실) 사진아카데미 초급반 10시~12시(4층 회의실) 부산문인협회_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12	13 부산관악협회_ 2024년 부산관악협회 주최 제6회 전국 관악경연대회, 오후 10시, 010-6886-5896
14	15 웰빙댄스 10시~11시30분(4층연습실)	16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김정현의 팜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공연장)	17 가곡교실 12시~13시50분(2층연습실) 아랑고고장구 14시~15시30분(2층연습실) 방송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18 와라심포니_간이놀이반에 학생문화공연관람지원사업_ 어릴적예, 오전10시, 010-5148-3336 부산사진작가협회_학생사진공모전 심사, 051)631-4111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한국무용교실 14시~17시50분(4층연습실) 사진아카데미 초급반 10시~12시(4층 회의실) 부산문인협회_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19 와라심포니_같이놀이봐에_ 학생문화공연관람지원사업_ 어릴적예, 오전10시, 010-5148-3336	20 부산문인협회_ 제3회 부산문인의 날, 오후 3시, 051)632-5888
21	22 웰빙댄스 10시~11시30분(4층연습실)	23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김정현의 팜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공연장)	24 가곡교실 12시~13시50분(2층연습실) 아랑고고장구 14시~15시30분(2층연습실) 방송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문화가있는날_VIP타악양상 블_타악하기 좋은 예감:藝感_ 오후 7시, 051)631-1377	25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한국무용교실 14시~17시50분(4층연습실) 사진아카데미 초급반 10시~12시(4층 회의실) 부산문인협회_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26 늘푸른악단_evergreen big band concert_ 오후 7시, 010-3418-1133	27 부산사진작가협회_ 사진강좌, 오후 2시, 051)631-4111
28 부산연극협회_ 제42회 부산연극제 폐막식 및 시상식, 오후 5시, 051)645-3759	29 웰빙댄스 10시~11시30분(4층연습실)	30				



ART BUSAN MONTHLY VOL.226

2024 **APRIL 4**

CONTENTS

권두칼럼

06 꽃 피우는 예술 부산 _ 오수연

예서제서

- 08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27대 회장 취임식 _ 이효민
- 12 2024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 예감: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라인업
- 16 시민문예 강좌, 작고문인재조명 _ 정지영
- 18 제42회 부산연극제
- 20 제41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 22 강주미의 열한 번째 개인출판 - '맥' 청화당 김은경류 홀출 완판공연 _ 김해성
- 24 제63회 길동인전 '길동인 작고 작가와의 동행'
- 26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과의 동행 부산여류전
- 28 제32회 열매전
- 30 스페이스포포 - 시각의 차이 'COLORS'
- 32 제3회 산미술연구회 정기전

포토에세이

34 쿠바 사진여행 _ 박중호



여름_Acrylic on canvas, 6P(27.3×40.9cm), 2023

표지_김양순

개인전 및 부스 개인전 10회, 국내외 아트페어 14회
프랑스-국제현대미술 화랑제, 남부국제현대미술제(1993~2023), 그 외 국내외 기획, 초대 및 단체전 410회
현) 한국미협, 부산미협, 해운대미술가협회, 선과색, 부산현대작가협회



時雨일기

38 느린 봄날 한 컷 _ 문경희

인물포커스

42 부산예총 감사 신호국 _ 이효민

43 부산예총 감사 조성범 _ 이효민

예인탐방

44 배우 권철 _ 심상교

예술가열전 219

46 시인 최창도 _ 노옥분

손으로 쓴 문학

50 원동의 봄 _ 김경희

들여다보기

52 미술/ 손몽주 '떠다니는 조각들 : Floating Sculptures' _ 이지원

54 연극/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_ 김민수

56 영화/ <장인과 사위> _ 김민우

기획연재

58 예술치료Ⅳ - 치매 노인의 사회적 행동 증진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_ 김소형

62 즐거운 희곡 읽기Ⅱ - 『세일즈맨의 죽음』(민음사, 2020)을 읽고 _ 김영희

열린마당

66 인간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 - 영화 <플랜 75> _ 배학수

70 예총-전사-공연 뉴스

78 신간 안내

82 메세나 광장 & 정기구독회원 모집

2024년 4월 통권 226 <http://www.artpusan.or.kr>

1997년 10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2011년 8월 31일 변경등록번호 부산 라-01255)

발행일_ 2024년 3월 26일 발행처_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소_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전화_ 051)612-1372 팩스_ 051)631-1378 이메일_ artbusan1997@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_ 오수연 편집고문_ 이봉두(건축가회), 강명옥(국악협회), 김갑용(무용협회), 이석래(문인협회), 최장락(미술협회), 강종관(사진작가협회),

이정남(연극협회), 안규성(연예예술인협회), 서영조(영화인협회), 권성은(음악협회)

편집장_ 정지영 편집기자_ 이효민 디자인_ 두손컴 제호_ 김중문

※ 본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발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부산예총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꽃 피우는 예술 부산

글 _ 오수연 부산예총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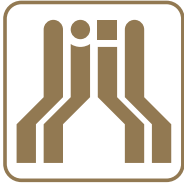
현시대 변화의 진폭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거세다. 기술 발전으로 국내와 국제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제4의 물결이라 칭하는 4차 산업혁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AI 기술이 대두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움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냐는 우려 섞인 질문도 나온다.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고 생활양식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으며 환경 문제에 관한 관심도 커져만 간다. 무엇보다 저출생이 심화하며 국력의 기초가 되는 인구가 소멸 기조에 들어섰다. 예술사학자 아르놀트 하우스저(Hauser Arnold, 1892-1978)는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에서 예술작품이 시대와 사회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사회적 산물이라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술작품은 순전히 작가 개인의 창작물이 아닌 사회 구성원의 생각이 반영된 공동 창작물의 경향도 갖게 된다. 창조의 원천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위에 존재함을 생각하면, 예술은 결코 사회와 동떨어져 탄생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술문화를 어떻게 꽃피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필연적으로 현시대를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바다를 품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해양을 끼고 형성된 독특한 도시문화가 창작의 원천이 되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부산에는 뛰어난 예술인이 많다. 그러나 다변화하는 사회 속 인구소멸과 같은 위기는 재능을 가진 예술인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부산예총은 1962년 예총경남 지부로 출범한 이래 62년의 역사 동안 지역 예술인을 대표하는 예술문화단체로 활동해 왔다. 예

술인 개인의 고민과 예술문화단체로서의 고민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지점이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시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산예총이 나아갈 길을 찾게 된다. 예술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펼쳐갈 수 있는 환경, 바로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만 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예술계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사회적 안전망이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듯이, 예술인들에게도 이런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 지역예술인 일자리 창출과 복지 강화를 통해 부산에서도 지속적인 예술 활동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부산예총은 최근 부산예술회관 예술단 청년합창단을 창단했다. 또 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청년 국악단, 무용단, 연극단 등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예술인단을 만들 계획이다. 일자리창출과 예술인들의 자생을 위해 가장 직접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안이다. 제2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대형 전시 공간을 폐교나 공공건물을 활용해 조성하고 부산예술회관 전용 공연장을 확보하는 것 등도, 부산에서 얼마든지 대형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부산예술원 설립 추진과 부산예술상 및 청년예술상 확대는, 예술이라는 기약 없는 여정을 달려가는 많은 예술인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들이 곧 지역의 화두인 인재 유출을 막는 길도 되리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강조하고 싶은 건, 예술문화에는 공적 지원만이 아닌 사회적 후원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최근 부산의 많은 기업이 예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다. 고대 로마부터 르네상스 시대까지, 예술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한 ‘메세나’ 정신이 부산에도 움트고 있음을 느낀다. 수도권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예술인들의 노력에 보다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문화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예술이 사라지면 그 사회의 문화 수준은 한 단계, 두 단계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를 다시 되돌리기란 요원한 일이 될 테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 대에 불과했던 1972년에도 예술문화의 중요성을 믿고 문예진흥법 제정 등 문화강국의 기틀을 다진 역사가 있다. 현재 많은 여건이 어렵지만 그 어렵던 시절에도 예술문화의 힘이 융성해질 미래를 준비했던 것을 본받아,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예술인, 그리고 부산예총의 역할이지 않을까. 예술로 꽃 피우는 예술 부산은 바로 그러한 노력들 위에 세워지리라.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27대 회장 취임식

2024. 3. 19. 오전 11시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3

3월 19일 오전 11시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부산예총) 제27대 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대형 상들리에를 중심으로 양쪽 벽에 각 단위협회 현수막이 걸린 현장으로 초대받은 각계 인사들이 들어서며 인사를 나누는 광경이 펼쳐졌다.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강석훈 KBS부산방송총국 총국장, 박용수 (주)골든블루 회장, 강익구 부산예술후원회 회장, 그밖에 지역 유수의 기업인들과 부산예총 각 단위협회 회장단, 원로 작가 및 대의원 등이 참석하며 취임식이 시작됐다.





오수연 부산예총 회장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축하 무대가 예정된 어린이 무용수들이 각각 내빈에게 꽃 한 송이를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로 장내 분위기는 더없이 훈훈해졌다. 오수연 회장은 취임사에서 “부산예총을 상징하는 심벌마크는 깊고 굵은 문화의 뿌리를 가진 나무를 형상화한 것이다. 62년의 역사 동안 뿌리깊은 나무가 되어 견실하게 예술문화를 만들어 가는 곳이 바로 부산예총”이라며 가장 먼저 부산예총의 의미를 되새겼다. 회장 선거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대형 예술창작공간 조성 ▶예총 예술단 확대 통한 일자리 창출 ▶부산예술원 설립 추진 ▶부산예술상 및 청년예술상 확대 ▶창작 지원금 확보 등도 언급했다. 이를 아우르는 ‘예술계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강조하며 “예술문화에는 공적 지원과 사회적 후원의 뒷받침이 중요하다”함을 역설했다.



어린이 무용수에게 꽃을 받는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



축하공연 경기민요



축하공연 바이올린



축하공연 어린이 무용

이어진 축하에서 박형준 시장은 문화도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오수연 회장의 연임으로 부산예총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성민 의장은 어린이 무용수에게 받은 꽃을 들고 단상에 서서 아름다운 꽃을 받은 만큼 예술문화 분야 예산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하며 박수를 받았다. 하윤수 교육감은 부산 문화 발전을 선도해 온 부산예총이 부산을 넘어 우리나라 예술문화의 자긍심을 높이는 단체로 발전하길 기원한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시간 관계상 현장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하진 않았지만, 리노공업㈜에서 이천만 원, (주)골든블루에서 일천만 원의 기부금을 쾌척하며 ‘메세나’ 정신을 보여주기도 했다. 축하 공연은 예술인들의 행사다운 면모를 보였다.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이 담긴 경기민요의 구성진 가락으로 시작해서 풍부한 음색과 표현력으로 사랑받는 관현악기인 바이올린 연주로 이어졌다. 꽃 한 송이로 취입식의 시작을 빚었던 미래의 예비 예술가들은 한국무용 무대로 감쪽하고 경쾌한 동작을 선보였다. 건축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 꽃작가 등 부산예총 단위협회의 원로 작가와 대의원 소개를 끝으로 참석자들은 오찬을 즐기며 오수연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글 사진_이효민



2024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예감: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라인업

2024. 4. ~ 11.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전시장

스트릿 매지션 스텝아트컴퍼니 | 4. 3.(수) 19:00

스트릿댄스와 영상, 미디어를 기반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스텝아트컴퍼니]가 선보이는 복합 공연무대다. 스트릿댄스, 마술, 랩을 결합한 창작 퍼포먼스와 관객 체험이 있는 무대를 지향한다.

▶**관람형** 스트릿댄스 오프닝, 스트릿댄스 매지션 창작 퍼포먼스, 스트릿댄스 프리스타일 ▶**체험형** 스트릿댄스의 기초 동작을 배우고 따라할 수 있는 '티팅 따라잡기!'를 통해 관객들은 간단한 스트릿댄스적인 요소와 기술을 체험 ▶**참여형** '몸으로 말하기 댄스 미션'에서 관객들은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신의 몸을 통해 말하는 댄스 미션에 참여 ▶**화합형** 관객들이 현장에서 퍼포머들과 팀을 이뤄 스트릿댄스 배틀에 참여하는 '댄스배틀'

타악하기 좋은 예감:藝感 VIP타악양상블 | 4. 24.(수) 19:00

[VIP타악양상블]은 부산과 경남을 무대로 활동하는 전문 타악연주자로 구성된 전문예술단체다. 단체명 VIP는 Variation In Percussion, 즉 '타악기의 변화'라는 뜻이다. 클래식과 영화음악, 애니메이션 음악을 각종 타악기를 통해 세 가지 주제로 표현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첫 번째 주제 '우주'** 우주를 주제로 하는 <스타워즈> 메인 테마곡과 구스타브 홀스트의 「The Planets」, 행성 중 화성(Mars)과 목성(Jupiter) 두 곡을 연주 ▶**두 번째 주제 '바다'** 바다를 배경으로 모험과 탐험, 낭만이 있는 애니메이션 <원피스> OST부터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타이타닉> 모음곡 등을 연주 ▶**세 번째 주제 '모험'** 영화 <인디애나 존스>와 <쥬라기 월드> 모음곡, 게임 '메이플 스토리' 주제곡 등을 연주

향기로운 클래식 '꽃으로 피우는 음악정원' 디어뮤직컴퍼니 | 6. 12.(수) 19:00

[디어뮤직컴퍼니]는 많은 관객에게 사랑받는 음악을 통해 '소중한 음악'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나누고자 결성된 클래식 전문연주단체다. 이들의 기악·성악 앙상블이 자아내는 조화로운 하모니는 꽃내음 가득한 테마별 클래식 음악 정원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꽃의 왈츠」The Nutcracker Suite Op.71a 中 VIII. Waltz Of The Flowers for Piano 4 hands ▶슈만 가곡집 「미르테의 꽃 中 「현정」Myrthen Op.25-1 「Widmung」▶요한 슈트라우스 2세 「봄의 소리 왈츠」Voices of Spring, Waltz, Op. 410 ▶조동화 시, 윤하준 곡 「나 하나 꽃피어」▶조영식 시, 김동진 작곡 「목련화」▶박두진 시, 이흥렬 곡 「꽃구름 속에」 포함 13곡 연주

● **놀 신! 놀 신!** 원데이아트컴퍼니 | 6. 26.(수) 19:00

현대무용 [FAVOR댄스팀]과 스트릿댄스 [올트랙]이 소속된 [원데이아트컴퍼니]는 부산과 경남의 젊은 춤꾼이 모인 팀으로, 관객과의 쌍방향 소통이 있는 공연을 지향한다. 현대무용 한국무용 스트릿댄스 탭댄스 등 다양한 춤 장르를 뮤지컬이라는 하나의 요소로 버무려 '댄스컬'이라는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

▶**쥬토피아&명명댄스** 다양한 종류의 춤을 선보이며 소개하는 임팩트 있는 시작 ▶**알라딘 메들리** 뮤지컬 <알라딘>을 댄스 중심으로 다시 리메이크한 메들리 무대 ▶**댄스왕 선발&릴스** 즉흥적으로 현장에 있는 관객과 소통하고 댄스를 함께 즐기는 시간 ▶**위대한 쇼맨** 뮤지컬 <위대한 쇼맨>의 하이라이트 무대 ▶**케이팝 댄스 메들리** 메들리로 만나는 유명한 케이팝 댄스



원데이아트컴퍼니

● **태고에서 현대로展** (사)한국서각협회 부산지회 | 7. 22.(월) ~ 7. 28.(일)

한국서각협회 부산지회는 부산 지역 우석, 석불 선생의 맥을 이어 품격 높은 서각 예술을 추구한다. 전통 서각과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현대 서각을 조형예술 연구를 통해 창조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다.

▶**전시 일정**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 단, 22일은 오후 3시부터 개방, 28일은 오후 3시까지만 개방한다.

▶**예술 체험 프로그램** 본인이 작업하고자 하는 글씨 또는 그림을 밑그림으로 그려 음각·양각 등 기본 기법으로 작업해 볼 수 있다. 1회당 10명 모집하며 27일 2회(10:00~12:00, 13:00~15:00), 28일 2회(10:00~12:00, 13:00~15:00) 진행한다.

● **BUSAN LOVE FESTIVAL 40STAIRS' NS TOUR BAND** | 7. 31.(수) 19:00

[40STAIRS' NS TOUR BAND]는 [BIG BAND]와 [JK BAND] [BLACK EAGLES] 등에서 각자 활동하는 각 밴드의 리더들이 모여 재결합한 단체다. 작사, 작곡 등을 통해 다양한 음악을 발표하고 MC와 함께하는 꾸준한 공연 활동으로 관객과 함께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무대는 말 그대로 '부산 사랑'을 주제로 한다. 대중가요의 발상지인 부산의 명소를 주제로 했거나, 상징적인 제목 또는 가사가 있는 노래를 선곡해 라이브 밴드와 보컬이 공연함으로써 부산 사람의 자긍심을 높이고 부산을 널리 알린다.

▶윤평원 작사, 이범희 작곡 「부산찬가」 ▶정찬우 작사, 이호준 작곡 「해운대 연가」 ▶정의승 작사·작곡 「가고픈 부산 송도」 ▶손로원 작사, 이재호 작곡 「경상도 아가씨」 ▶손상영 작사, 추세호 작곡 「자갈치 아지매」 ▶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 「이별의 부산정거장」 ▶한산도 작사, 백영호 작곡 「해운대 엘레지」 포함 11곡 연주 및 노래

● **클래식으로 만나는 주토피아 JM양상블 | 9. 25.(수) 19:00**

[JM양상블]은 Joy of Music, 즉 음악을 통해 연주자와 관객이 기쁨을 나누는 것을 소중한 비전으로 삼는다. 독특한 편성의 목관 트리오와 마임 그리고 나레이션의 다원 예술적 편성으로 공연하는 단체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주토피아'는 동물들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클래식 작품들을 실내악과 나레이션 그리고 마임으로 연출한 음악극이다. 다양한 주제의 멜로디와 악기 편성, 스토리텔링을 통해 알기 쉬운 클래식으로 구성했다.

▶**브라운 「숲속의 동물아파트」** 이스라엘 작곡가 브라운이 작곡한 'Apartment to let'은 아름다운 계곡, 넓은 들과 꽃으로 둘러싸인 5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다양한 성격의 동물 세입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음악, 나레이션, 영상으로 들려주는 작품이다.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 「피터와 늑대」** 러시아의 현대음악을 대표하는 프로코피예프가 어린이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이해를 돕기 위해 1936년 작곡한 곡으로 '농장에 침입해 오리를 삼켜 버린 늑대를 어린 피터가 잡아서 동물원에 보낸다'는 내용이다. 등장인물 피터, 할아버지, 사냥꾼, 늑대, 고양이, 새, 집오리들을 각각 특정한 주제로 표현하면서 나레이션이 삽입되어 이야기가 전개된다.

● **뮤지컬 콘서트 세레나데 아트컴퍼니 | 10. 30.(수) 19:00**

[세레나데 아트컴퍼니]는 뮤지컬을 사랑하는 보컬, 성악 등 음악 전공자 5인으로 시작해 현재 26명 소속으로 성장한 뮤지컬 퍼포먼스 예술단체다. 이번 뮤지컬 콘서트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인기 가요로 구성된 'Love blossom'(40분)과 동화 속 주인공을 실제로 만난다는 콘셉트의 '창작음악극 토리와 이야기책'(30분)으로 펼쳐진다.

[Love blossom] ▶**오프닝** 뮤지컬 퍼포먼스 공연으로 뮤지컬 <맘마미아> 메들리 ▶**챕터 1. 사랑과 희망** 보컬 앙상블로 뮤지컬 <렌트> 「Seasons of Love」 ▶**챕터 2. 열정적인 사랑** 가요 퍼포먼스로 율랄라세션 「아름다운 밤」 ▶**챕터 3. 사랑과 지혜** 보컬 앙상블로 소향 「바람의 노래」

[창작음악극 토리와 이야기책] ▶**신데렐라** 「비비디바비디부」 겨울왕국 「사랑은 열린 문」 겨울왕국 「Let it go」 백



세레나데 아트컴퍼니

설공주 「Someday my prince will come」 알라딘 「A whole new world」 「나 같은 친구」 라이온킹 「하쿠나 마타타」

[뮤지컬콘서트 커튼콜] ▶사이 「예술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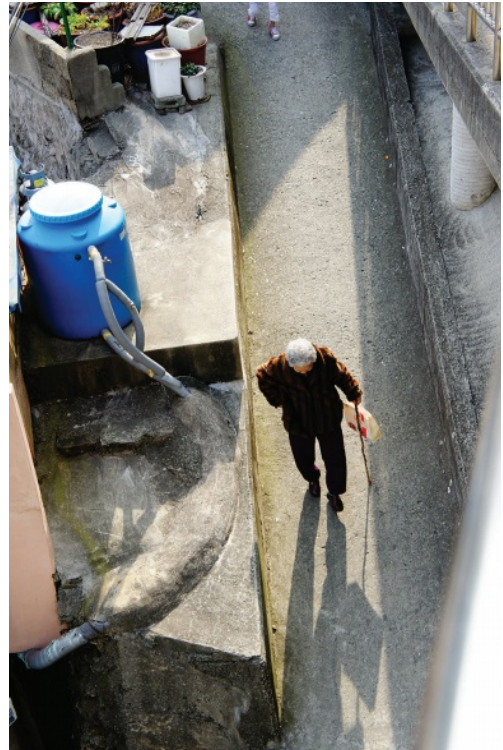
● 부산의 골목을 찾다 부산여류사진가회 | 11. 26.(화) ~ 12. 1.(일)

부산여류사진가회_노모의 발걸음

여성 사진작가로만 구성된 [부산여류사진가회]는 한국사진작가협회에 등록된 단체다. 잊혀가는 부산의 뿌리를 찾으며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부산의 골목을 찾다' 전에서는 감천동, 감만동, 다발골 등지부터 해운대 변화가 속에 숨은 옛길까지, 과거와 현재, 사람과 골목이 공존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선보인다.

▶전시 일정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 단, 12월 1일은 오후 3시부터 개방한다.

▶예술 체험 프로그램 주변에 있는 대상을 활용해 사진을 찍는다. 핸드폰으로 촬영 후 평가(보정·수정 포함)하기와, 폴라로이드 및 카메라로 촬영하기 등이다. 1회당 30명 모집하며 11월 30일 1회(14:00~16:00), 12월 1일 1회(12:00~14:00) 진행한다.



● K-MUSIC과 함께하는 가을밤의 판타지 운사당(정자경 가야금병창아지트) | 11. 27.(수) 19:00

중견 국악인들이 전통 예술 발전과 전승을 위해 활동하는 [운사당雲絲堂]은 전통 음악에 뿌리를 두지만 현대적이며 동시대를 아우르는 음악을 한다.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부산문화재단 행사 등을 통해 공연하고, 전통에 기반을 둔 콘텐츠 개발, 한국의 정신과 정체성을 담은 문화교류에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Intro] ▶Last scene 서정적인 국악기의 선율을 모던락과 접목해 창작한 국악곡 ▶판 국악기와 양악기가 따로 또 함께 모여 신나게 풀어나가는 놀음 ▶아리랑 여행 각 지역별 아리랑을 연곡 형식으로 노래

[바다속에서 만나는 판타지] ▶국악가요 「난감하네」 ▶수궁가 「가자어서가~광대장자 대목」 ▶국악가요 「배 띄워라」

[Festival] ▶우리의 사계절과 자연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곡에 창작무용이 함께하며 매력적인 도시 부산을 표현하고, 친숙한 대중가요를 한국 전통악기 반주로 편곡해 색다른 무대를 연출한다.

문의_051)631-1377 / 편집실

동료를 추모하며 교훈을 얻다 시민문예 강좌, 작고문인재조명

2024. 3. 15.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문인협회(회장 이석래)의 시민문예 강좌는 '작고문인재조명'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시작해 작고 문인들의 업적과 문단에 미친 영향, 문학관 등을 일반 시민과 기성 문인들에게 알리고 있다. 2024년 제1차 시민문예 강좌가 3월 15일 오후 4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번 강좌에서는 '불법성의 묘리에 점 하나를 찍은 선'의 시인 김의암과 '평범한 삶을 꿈꾸다 평범의 다리를 건너가 버린 시인 장기연'을 재조명했다. 강의는 권혁동 부경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작고 문인을 재조명한다는 것은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와 작품의 세계를 재조명한다는 것이다. 작품의 재조명은 문학의 이론과 실제의 학문적 바탕을 기준으로 재조명하는 작업이다.'

강사로 나선 권혁동 명예교수는 작고 문인을 재조명하는 목적에 대해 첫째 우리와 문화 창달에 뜻을 같이했던 동료인 그를 추모하고, 둘째 작품의 세계를 조명하는 과정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1932년 경상남도 김해에서 태어난 김의암 시인은 1959년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63년에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동아대학교 대학원 철학과를 이수했다. 65년부터 70년까지 청령사 주지로 있었고, 97년까지 광성공업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67년 『불교신문』 신춘문예와 『시문학』으로 등단했다. 부산문인협회 새부산시인협회 동국시인협회 사하문인협회 한국서예작가협회 등에서 활동했다. 선시 번역시선집 『선문에 뜨는 달』 『푸른



강의하고 있는 권혁동 교수



김의암 시인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김병래 시인

바람 불어올 때, 『목인의 노래』 『허공에 쓰는 시』 등의 작품집이 있다.

권혁동 교수에 의하면 김의암 시인은 첫째, ‘불교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시인’으로 ‘불교라는 이상 세계를 그리워하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아니면 중간인으로 살았’던 그의 삶을 이해해야 그의 시를 알 수 있다. 둘째, ‘자연이고 싶었던 시인’으로 ‘바람이 불다 자취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물이 흘러 어디론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 가고 싶었던 사람’이기에 무소유를 실천하며 ‘시집도 한 권 없이 떠났다’. 자기 시집은 한 권도 내지 않았으면서 자비로 『한국여성시』 동인지 발간과 여성시백일장을 개최해 여성 문단의 등용문이 되어주었다. 넷째 ‘술선수범하는 묵인 수행자’로 ‘끝까지 선의 경지를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 시대에 보기 드문 선시인’이다. 끝으로 김의암 시인의 글을 통해 각박한 세상에서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기 위해 유고 시집이라도 한 권 낼 수 있다면 ‘그분의 겸손에 대한 우리들이 보답’이 되지 않겠냐고 했다.

장기연 시인은 1949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났으며, 1994년 『실상문학』을 통해 등단했다. 부산문인협회를 비롯해 부산시인협회 회원, 현대시인협회 이사, 국제펜 한국본부 부산지회 부회장, 한국불교문인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시집으로 『들꽃의 그리움 가슴에 담고』 『존재 그 허무의 언어』 『기억, 숨 쉬는 흔적』 등을 펴냈고 한국불교문학상 본상, 고산 윤선도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권혁동 교수는 ‘글은 순수해야 한다. 한 사람의 고뇌와 사물을 탐구하는 열정과 표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절절함과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진솔한 인생이 녹아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공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인간의 속성인 자유와 고독 중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선택’한 장기연



시인의 글이 순수하다고 설명한다. ‘문인 단체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했고 사회봉사 활동도 하고 길흥사에도 빠지지 않았던 시인은 남편과의 너무 이른 이별로 인해 ‘혼자 살았을 때 느낀 고독을, 그 고독을 벗어나기 위해서 느낌 그대로를 진솔하게 썼다’고도 했다. 또한 누군가에게 그리움으로 남고 싶은 평범한 삶을 꿈꾸었던 한 시인의 작품을 통해 한마음으로 그리워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마지막에 남겼다.

지역의 작고 문인들의 업적과 문단에 미친 영향 등 작가의 문학관을 들여다보는 <시민문예강좌>는 올해 모두 네 차례로 기획되었다. 6월 14일은 부산예술회관 4층 회의실에서 소민호 아동문학가가 강사로 나서 아동문학가 주성호, 최영희의 삶을 들여다본다. 9월 20일에는 권대근 수필가가 강사로 나서 백부흙 채낙현 수필가의 작품세계와 삶을 조명한다. 12월 20일에는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에서 양왕용 시인을 강사로 손경하 박현서 시인에 대해 얘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문의_051)632-5888 / 글_정지영

‘시민과 함께 모여 만들다’ 제42회 부산연극제

2024. 4. 13. ~ 28.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공간소극장 등

‘시민과 함께 모여 만들다’는 슬로건으로 버전을 업그레이드한 제42회 부산연극제가 16일간의 향해를 시작한다. 부산연극제는 대한민국연극제 부산 예선이라는 형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모이고 함께 만드는 부산의 대표 공연예술축제로 재도약을 꿈꾼다.

이번 연극제는 붐!BOOM!, 언리미티드UNLIMITED, 씬SCENE, 올ALL, 노이즈NOISE 등 다섯 개의 섹션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각각의 프로그램에는 새로운 연극성을 발견해 부산 연극예술을 활성화할 다양한 작품들이 시민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붐!’은 연극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초청작품을 선보인다.

〈안차도 ; 그 섬의 아이들〉(4. 13.~14.) 〈어둠상자〉(4. 20.~21.) 〈두 번째 시간〉(4. 28.) 세 작품을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공연한다. 극단 [우렛]의 〈안차도 ; 그 섬의 아이들〉은 외부와 단절된, 눈이 가려진 섬(안차도)에서 수동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삶에 의문을 가지며 세상을 바꿔 나가는 얘기다. 극단 [누리에]의 〈어둠상자〉는 고종 황제의 사진이 영감이 된 작품으로 ‘황제의 굴욕 사진’을 찾기 위해 세대를 이은 탈환의 대서사시를 담았다. 구한말부터 현대로 이어지는 인연과 숙명에 대한 이야기다.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의 〈두 번째 시간〉은 미제로 남은 의문사 사건을 중심으로 이 시대의 역사적 모순을 끌어안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묻는다.



극단 우렛_안차도 ; 그 섬의 아이들



극단 누리에_어둠상자

‘**언리미티드**’는 부산 지역 소재의 공연예술단체 작품 또는 연극의 형식을 가진 작품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소극장 경연 섹션으로 최우수 1개 작품을 선정해 1천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극단 [아이컨텍]의 <룸메이트 스파이크>**(4/13~14, 공간소극장)는 2030 취준생에 대한 이야기로 여자 셋이 함께 살며 생기는 에피소드를 세터, 스파이커, 리베로 등 배구 경기에 빗대어 보여준다. **[데일리드라마의 <오늘의 지구>**(4/15~16, 열린아트홀)는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거대 권력의 흐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개인이지만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작은 말과 행동이 하나의 파동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따뜻한 사람의 <컨테이너>**(4/17~18, 공간소극장)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허상과 자유와 행복, 돈에 대한 가치관을 심도있게 표현했다. **[빅픽처스테이지의 <코마>**(4/19~20, 열린소극장)는 보험사기 사건을 통해 자본주의 현 사회에서는 누구나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술집단 백미의 <그 강을 건너지 마오>**(4/22~23, 공간소극장)는 공무도하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노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 **[부산연극제작소 동넵의 <날개, 돌**

다>(4/24~25, 열린소극장)는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며 우리는 각자 개성을 지닌 다른 인간이기에 이제는 나만의 날개를 활짝 펼치자는 의미를 전한다. **[극예술실험집단 최의 <30000원 내고 우리 연극 볼 바에 차라리 그 돈으로 치킨을 한 마리 사먹겠다>**(4/25~26, 공간소극장)는 연극 작품을 만들고 무대에 올리고 공연을 관람하는 이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려고 권한다.

‘**썬**’은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전국의 예술가와 시민들이 연극성을 펼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극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명장면 다시보기’와 ‘장면의 재구성’ 두 트랙으로 진행하며 시민들의 직접 심사로 우수 작품을 선정한다. ‘**울**’은 부산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부산시민공원과 명지근린공원, 수영구 국민체육센터로 찾아가는 거리 공연이 함께 열린다. ‘**노이즈**’는 시민과 예술인이 한데 모여 시끌벅적 난장을 이룰 세미나, 네트워킹파티 등 부대행사 섹션이다. 애호가도 아니어도 올봄 한번쯤은 부산연극제에서 익숙하지만 낯선 순간과 조우해 보길 권한다.

문의 051)645-3759 / 편집실

극단 배.관.공_두 번째 시간



단편영화로 들여다보는 현실 세계

제41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2024. 4. 25. ~ 30.

영화의전당,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모퉁이극장 등

국내외 전 세계에서 제작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단편영화들을 통해 단편영화 제작 경향부터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사, 시대적 메시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41회를 맞았다. 주제는 '영화&현실(Cinema & Reality)'이다. 현실 세계를 잘 드러내는 단편영화의 특징을 살리고, 2D영화부터 실험영화, 인터랙티브 영화 등 다양한 영화적 형식으로 현실을 담은 영화를 관객에게 소개한다.



알도 율리아노_다이빙



샘 마낙사_진짜 맹세해



김소영, 장민희_내 어머니 이야기

올해는 경쟁 부문 116개국 3,682편 출품, 상영작 규모는 약 139편 상영에 이른다. 4월 25일 오후 7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개막작**으로 알도 울리아노의 <다이빙>, 샘 마낙사의 <진짜 맹세해>, 김소영·장민희의 <내 어머니 이야기>가 상영된다. 매년 한 국가를 선정해 해당 국가의 단편영화들을 깊고 넓게 소개하는 **주빈국** 섹션의 주인공은 이탈리아다.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아해 'Tiamo! 이탈리아!'를 슬로건으로 더욱 뜻깊은 주빈국 행사를 준비했다. 이탈리아의 문화와 예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단편영화들을 소개함은 물론, 한국인이 사랑하는 이탈리아 영화 음악을 피아노 연주로 듣는 개막 공연, 올해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공식 포스터 작가인 오중석 화가의 드론 퍼포먼스 등이 펼쳐진다.

경쟁 섹션은 **국제경쟁**에 출품한 2,878편 중 예심 통과한 39편의 작품, **한국경쟁**에 출품한 804편 중 예심 통과한 20편의 작품, 부산국제단편영화제와 부산시 중구가 지원하는 단편 다큐 제작 지원 프로젝트로 지역 영화·영상 전공 대학생들이 만든 영화 5편을 소개하는 **오퍼레이션 키노**로 진행

한다. 한국 단편영화의 경향과 비전을 여러 맥락에서 모색해 보는 **코리아** 섹션에서는 영화에서 인식되는 카메라의 존재와 시선을 통해 영화의 시점과 리얼리티의 관계를 헤아려보는 '나는 눈이다'와 청년 세대의 현실에 기반한 비극을 다룬 '씹어먹힌 현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현실의 영화' '영화의 현실' '3D 시네마' 'VR 시네마' 등 단편영화의 한계를 벗어난 영화를 바라보는 프리즘 섹션, 칸·베를린·베니스 영화제 등 세계 우수 영화제의 단편 부문 수상작들을 초청해 소개하는 '커튼콜', 제41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단편영화 제작 지원을 통해 완성된 2편의 작품(한국 1편, 부산 1편)을 최초 상영하는 'BISFF 제작지원' 등이 있는 **특별상영** 섹션도 마련된다. 그밖에 3D 영화 제작 및 기술에 관한 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뉴미디어 시네마 워크숍', 3D 영화, XR, 버추얼 프로덕션, AI 등 기술의 구체적 양상과 영화 미학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부산국제트랜스미디어포럼' 등도 개최한다.

문의_051)742-9600 / 편집실

강주미의 열한 번째 개인춤판 **‘맥’ 청화당 김은경류 홀춤 완판공연**

강주미의 열한 번째 개인춤판인 ‘청화당 김은경류 홀춤 완판공연’이 지난 3월 20일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에서 생동하는 봄기운을 가득 담아 펼쳐졌다.

강주미는 예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는 춤패바람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몇 안 되는 부산의 중견춤꾼 중 한 명이다. 스승인 청화당 김은경과 강주미의 인연은 30년이 넘었다고 한다. 이번 공연은 스승으로부터 춤을 권유받은 지 수개월의 숙고 끝에 막이 올라간 것으로, 두 사람의 교학상장(敎學相長)이 결실을 맺게 된 공연이다. 김은경은 부산시무형문화재 동래고무 예능보유자이자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이사장을 역임한 동래 지역 춤의 지킴이이다.



무대의 막은 강주미가 김온경으로부터 가장 먼저 배웠던 춤인 <산조춤>으로 열렸다. 이 춤은 가야금 산조의 명인 강태홍의 가야금 산조 음율에 춤가락을 얹어 성립된 춤으로 알려져 있다. 음악의 성격이 우조와 평조, 계면조를 동시에 사용하며, 엇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고도의 절제된 기교가 특징인 만큼 추기 어려운 춤을 강주미식 해석으로 잘 풀어내었다. 두 번째 무대 역시 강주미의 <동래입춤>이 공연되었다. <동래입춤>은 동래지역에서 추어졌던 <굿거리 춤>을 바탕으로 무대화하여 현재는 <동래입춤>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수건춤과 소고춤이 합쳐져 있어 춤꾼의 연륜과 학습의 수준을 가늠할 만큼 숙련도가 필요한 춤을 강주미는 완성도 있게 전개해 나갔다.

세 번째 순서로 18현 가야금 창작곡을 부산시 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이수자인 최경철이 연주한 축하공연 <이화우>는 만개한 배꽃이 봄바람에 흩날리며 꽃비를 내리는 모습과 봄을 보내는 인간의 복잡한 마음을 그려낸 작품으로 새봄에 관객들의 마음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이어진 강주미의 <승무>는 스승인 김온경으로부터 학습한 것으로서, 특히 춤사위 말미에 이어지는 북가락은 김온경이 강태홍에게 직접 배운 강태홍제이다. 강주미는 시원한 이목구비와 큰 키에 걸맞게 선이 굵은 춤을 춘다. 이번 <승무> 작품에서는 여성 무용가로는 이례적으로 바지저고리에 흑 장삼을 입고 승무를 추어 시원한 무대를 자랑하였다. 부산시 무형문화재 부산농악 장구 예능보유자인 박종환은 <영남채상설장구>로 축하공연을 하였다. 머리에 상모를 쓰고 연주하는 것을 채상 설장구라고 하는데 이날 박종환은 부산농악의 특색 있는 설장구 가락을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신명몰이를 하였다.

여섯 번째 순서는 강주미의 <동래문동춤>이다. <동래문동춤>은 동래야류의 문동이 과장에서 추어졌던 춤이다. 이 춤은 과거 동래지역 명무였던 신우연, 문장원이 고증한 것을 김

온경이 오늘날까지 추어왔으며, 특히 이번 공연을 위해 의상을 무대용으로 꾸미고, 구성도 무대화시켰다. 춤꾼 강주미는 무대 상수에 자리한 악사들과 함께 흥을 주고받으며, 신명나게 문동춤을 풀어나갔다. <동래문동춤>에 이어서 풍류전통예술원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정동훈, 이정현, 권용우, 서희진이 앞은반 사물놀이를 연주하였다. 부산농악 예능보유자인 박종환이 동해안 별신굿의 쟁과리 타법과 가락을 입혀 한바탕 신명을 관객들에게 선사하였다.

축판의 마지막은 강주미의 <동래학춤>으로, 초대 전수조교를 지냈던 스승 김온경이 해석하는 양식으로 춤을 선보여 오늘날 문화재로 지정된 <동래학춤> 춤사위와는 차별되었다. 어느 춤보다 강주미는 이 무대에 의상도 새로 장만할 만큼 많은 공을 들인 점이 인상적이었다. 선이 굵은 그녀의 춤사위는 동래학춤의 배김사위를 비롯한 덧배기춤의 맛을 내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무대화된 동래학춤을 관객들이 만끽하기에 충분한 공연이었다. 특히 춤사위의 풍성함을 뒷받침하는 구음을 송소란(동래학춤 구음 이수자)이 불러 학춤의 맛을 더하였다.

여러 무용가의 훌춤 공연을 그동안 접하였지만, 개인 공연에 한 명의 무용가가 훌춤으로 무려 다섯 번을 무대에 선 예는 일찍이 보지 못했다. 그만큼 춤에 대한 진심어린 열정이 느껴지는 공연이었다. 10여 년간 꾸준히 개인축판을 열어온 예인 정신과 두 번째는 스승인 김온경의 훌춤 5가지를 전수받아 처음으로 김온경류를 붙인 공연을 올렸다는 점이 이번 공연의 큰 의의라 할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강주미의 춤판 '맥'은 제목이 주는 의미만큼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시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글_김해성 부산여자대학교 교수, 부산시문화재위원
사진_류민형



- 1 조규철_무제, 56×75cm
- 2 안석희_천년의 침묵, 90.9×72.7cm
- 3 안태준_어머니, 30호P
- 4 송대호_봄날의 꿈, 30호F
- 5 안귀녀_설악산 권금성에서, 20호M

제63회 길동인전

'길동인 작고 작가와의 동행'

2024. 4. 15. ~ 20.

부산시청 제3전시실

60여 년, 반세기가 넘도록 부산 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길동인회(同人會)가 전시를 개최한다. 63회째를 맞아 특별히 길동인 작고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부산교육대학교(전신 부산사범대학) 동문 미술단체로 1963년 창립전을 가진 길동인회는 서양화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수 및 대학교수로 재직한 이들이 활동했다. 최근에는 한국화, 민화 등으로 장르를 넓혀 30여 명의 회원이 함께한다. 여러 언론매체에서 '모범적인 동문 미술 단체'로 소개된 길동인회는 그동안 전시를 연 태화다방, 보리수다방, 부산탐미술관, 은하화랑 등 지역 전시장과 그 역사를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3



4



5

이번 전시는 길동인회 출품 작가 32인(구선화 김금숙 김나미 김동순 김미화 김방자 김복남 김순영 김종수 김쾌분 류정임 문근영 민병숙 박정미 서말분 송대호 안귀녀 안석희 안태준 안숙희 안순금 윤상태 이수희 이순자 이임주 이태훈 정경희 정수복 정현주 조규철 한숙자 허정애)과 작고 작가 3인(故 문순상 故 박충수 故 박상연) 총 35명의 연륜 있는 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다. 안태준 회장은 “그림을 위해 한평생을 살아온 작고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그분들의 작가로서의 삶과 모습을 떠올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젊은 후배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전언했다.

문의_010-7532-6226 / 편집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과의 동행 부산여류전

2024. 4. 22. ~ 27. 부산시청 제3전시실

1975년 용두산타워 미술관장 김창섭은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화가 만으로 작품전을 기획했다. 참여작가는 김덕수 김정자 박대련 심화순 이분남 이상순 장한선으로 당시 두드러지게 활동하고 있던 여성 미술교사들이 대상이 되었다. '여류7인전', 김창섭 관장은 즉석에서 단체이름을 명명하고 같은 해 용두산타워 미술관에서 창립전을 열었다. 올해 창단 50주년을 맞는 부산여류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 1 서아희_만개, 폴라그래피, 38×53cm
- 2 박대련_넌, Mixed media on canvas, 116.0×72.7cm
- 3 이숙희_The PLANET,
Ottchil & Jagae on wood, 50×50cm
- 4 이상순_기억속에서, Acrylic on canvas, 91.0×91.0cm
- 5 권소연_일상의 은유,
Mixed media on canvas, 90.9×6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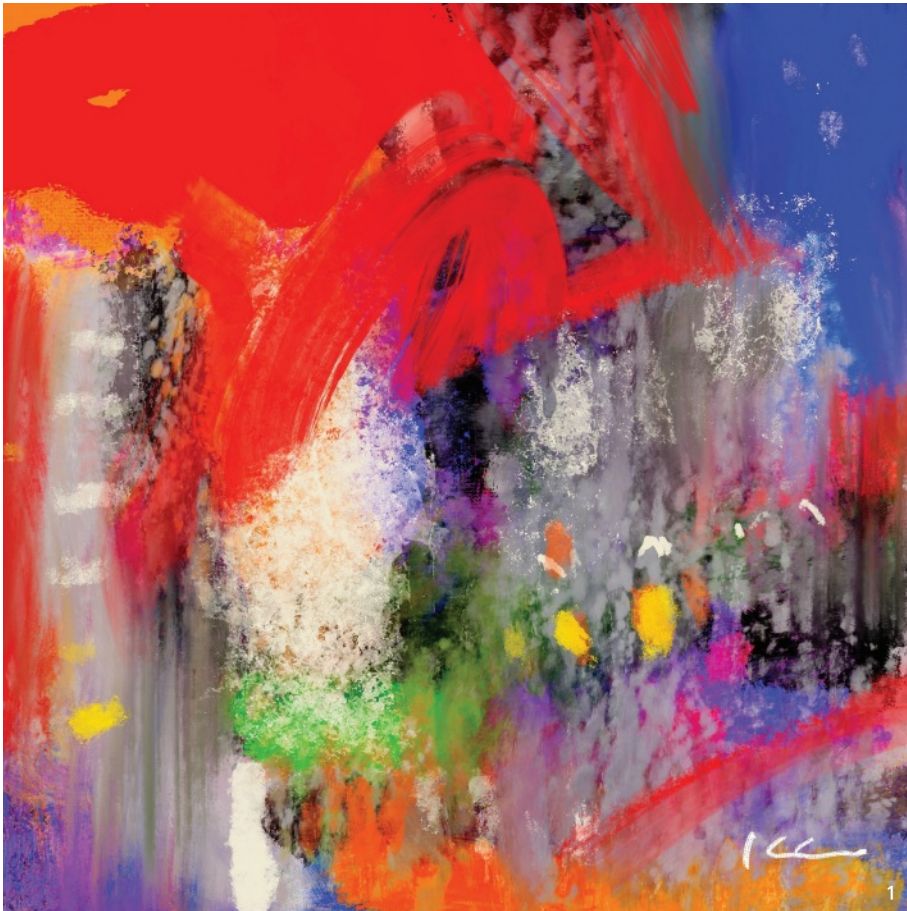
이후 부산여류전은 20대부터 80대까지 포진한 연령만큼이나 구상 비구상의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판화 등의 작품들을 선보여 왔다.

이번 전시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과 동행한다'는 부제로 지난 50년과 앞으로의 50년을 기약한다. 지나온 시간의 궤적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미래의 모습을 그려본다. 우리 삶에서 미술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작동할 것인가, 미래 세대가 만들어내는 미술은 어떠한 생각과 마음

을 담고 있는 것인가 등등, 지극히 작은 편린이지만 50주년을 맞아 함께 모색해 보는 자리로 마련했다.

여기에 창립 멤버인 박대련 이상순 선생을 비롯해 김하주 조순선 양형미 등 19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개성과 섬세한 감성이 잘 버무려진 작품으로 50주년을 기념한다.

문의_010-7738-0857 /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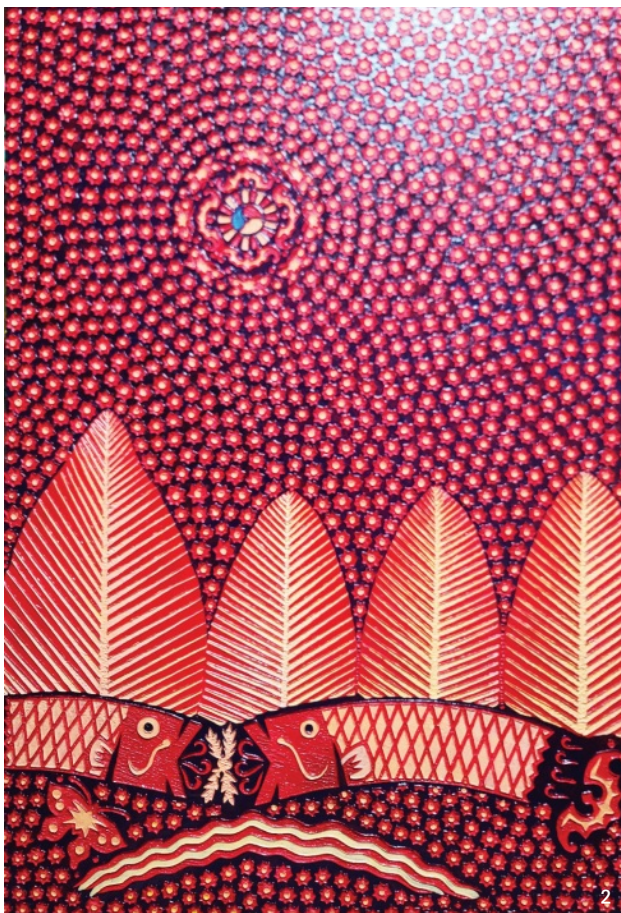


원로 작가들의 무르익은 작품세계

제32회 열매전

2024. 4. 15. ~ 21. 부산시청 제1전시실

열매회의 서른두 번째 전시가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부산시청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만 65세 이상으로 부산에 거주하는 작가들이 모여 창립한 열매회는 근대 부산 화단 2세대들이 주가 된 단체다. 1992년, 진병덕 추연근 오영재 김원 작가 등이 참여한 창립전(1992. 10. 18. ~ 17. 예나화랑)을 개최한 이래 꾸준한 활동을 펼쳐 왔다.



윤종철, 강홍운, 박동명, 노상철, 김용달, 이강운, 양철모, 차경복, 김충진, 김현언, 백낙효, 여홍부, 이충길을 비롯해 새로 참여한 이순이, 권의경, 안태준, 김지옥, 김선희는 명실공히 부산 화단을 지탱하는 원로작가들이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고행의 길목에서 혼탁한 사회를 맑혀보려는 일념으로 창작에 전념”하는 이들은 무르익은 작품세계를 통해 타의 모범을 보인다. 50~100호 대작과 20~40호 작품들을 선보인다.

백낙효 회장은 “부산 지역 문화의 텃밭이 되어온 열매회 회원들은 각자의 독창적인 정체성을 발전시키면서 후진 양성에도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 원로들의 노익장을 선보이고, 선후배 그리고 동료 작가들과의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_010-8364-1033 / 편집실

1 김충진_무제, Digital work, 2024

2 백낙효_공화(어룡농주),
캔버스 위에 혼합재료, 60F, 2024

3 이강운_가족, 캔버스 위에 유화, 20F, 2024



사물의 색에 관한 통찰 지각의 차이 COLORS

2024. 4. 3. ~ 14. 스페이스포포

[사진나무숲](대표 이계영 외 45명)은 부산대학교 디지털사진아카데미를 중심으로 결성한 사진예술단체다. 사진을 통한 예술문화를 형성하며 다양한 기획 전시를 해나가는 한편 타지역 사진제와도 교류·소통하고 있다.





3

스페이스포포(금정구 장전동 소재)에서 열리는 기획전 '지각의 차이'의 주제는 'COLOR'로, 사진예술로서의 컬러 사진 작품은 살고 있는 시대 및 삶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지닌 색채사진가에 의해 창작될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한다. 초창기 사진술 다게레오 타입은 풍경이나 인물을 실물 그대로 찍어낼 순 있지만 찬란한 색의 세계를 기록할 수는 없었다. 이후 거듭된 연구로 사진에 색을 구현할 수 있게 됐지만, 감광유제의 물감은 카메라가 보는 식으로 색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는 사진에 나타나는 색이 자연의 색이 아님을 뜻한다. 색채사진가가 오직 사진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색'으로 인한 미학적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지각의 차이 - COLORS'의 세 사진가는 사물의 빛깔에서 새로운 것을 느끼고 보는 통찰력을 가진 작가들이다. 김민주의 '일상의 시-plants'는 시멘트, 벽돌, 화분 등 좁고 척박한

공간에 갇힌 초록색에 주목하고 그에 필름의 아날로그적 감성을 더한다. 민혜의 'beef'는 풍경에 원색의 후보정을 가미하거나 연출한 정물에 조명 빛을 비추는 등의 방식으로 "나 괜찮지 않아!"라고 외친다. 이는 공허하고 고독한 중년에 감정을 이입하고 정화하며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한다. 박보경의 '기억의 향기'는 어둠 속 초롱불 같다. 건조한 도시에서 휴식처 같은 밤의 빛깔을 찾는다.

관람객과의 소통만이 아닌 표현 매체로서의 사진술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사진가들의 작업에는 내면의 의미를 외적 형식을 통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담겨 있는 듯하다.

문의_010-8558-0026 / 편집실

1 ©박보경_기억의 향기, Pigment print 경주_2022

2 ©민혜_beef1, Pigment print 부산_2023

3 ©김민주_plants, Pigment print 부산_2022



제3회 산미술연구회 정기전 ‘낮선 시선에서 지속 가능한 관점으로’

2024. 4. 9. ~ 14.

부산시민회관 12층 전시실

산미술연구회(SARA)가 세 번째 정기전을 개최한다. 제1회 ‘변방에서 중심으로’, 제2회 ‘익숙한 존재에서 낯선 시선으로’에 이어 ‘낯선 시선에서 지속 가능한 관점으로’를 주제로 정했다.

2022년 2월 22일 국내 작가 33명, 해외 작가 12명(독일, 루마니아, 미국 2명, 일본 4명, 중국 4명)이 모여 창립한 태산미술연구회는 금년 산미술연구회로 개칭했다. 매해 주제를 정해 연구하면서 연 3회 이상 세미나 개최, 연 1회 이상 전시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6월 22일 열리는 제8회 세미나에는 정택금 교수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1 예유근_시간기억, 캔버스에 아크릴릭, 100호F, 2022

2 박동채_mise en scene 2024.NO.7(7다람),
Drypoint & Photoetching & Watercolor, 69×98cm

3 Regina Bode_Midnight_Rain, Multilayered Monoprint, 2024

4 진영섭_본능의 힘, 적동, 400×200×150mm, 2023

5 허태명_해조음2024-1, 3D제작 및 디지털 프린트, 500×500mm, 2024



이번 정기전은 100호 평면 작품을 비롯해 조각, 공예, 설치 등 다양한 장르 작품이 출품되어 산미술연구회 회원들의 작품 세계를 엿보게 한다. 통영여성작가회(회장 오정숙 외 6명)를 초대해 향후 경남 지역 작가들과 교류의 포문을 연다는 점도 특징이다.

박용우 회장은 “지금까지 산미술연구회는 연 3회 세미나를 통해 보다 나은 변화를 꿈꾸는 미술 세계를 구현하고자 했다”면서 “함께 토론하는 공간 속에서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_010-3911-5902 / 편집실

쿠바 사진여행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섬나라 쿠바.

뜨거운 태양 아래 말레콘 해안을 달리는 올드카, 골목마다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

시가를 태우고 자유롭게 살사 댄스를 추는 사람들, 체 게바라와 헤밍웨이가 살아 숨 쉬고,

열정과 낭만이 넘치는 나라...

그곳의 거리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 소개한다.

글·사진_박중호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









느린 봄날 한 컷

봄맞이로 유실수 몇 그루를 심기로 했다. 그중 어머니가 일 순위였다. 그것은 어쩌면 아버지와 함께 적었던 봄날의 추억 때문인지도 모른다. 위태하게 나무를 타고 오른 아버지께서 허공으로 낫을 휘두르면 금세 마당 구석에 어머니 가지가 수북하게 쌓이곤 했다. 멀찌감치 물러난 우리는 까마득한 나무를 버티고 선 아버지를 고개가 아프도록 올려다보는 것으로 응원을 대신했다.

아버지가 낫을 거둬들이면, 우리는 쪼그리고 앉아 가시투성이를 비켜가며 여린순을 골라 땀다. 그런 날 저녁엔 별건 초장 한 자배기와 살짝 데친 어머니순이 상에 올랐다. 그러나 아무리 새콤달콤한 초장으로 범벅을 해도 허끝에 남는 씹쓰레한 뒷맛과는 좀처럼 친해지지 않았다. 문종이를 오려 만든 가오리연이라든가, 난



엄나무 순의 씹싸래한 향은
씹을 때마다 아버지와의 추억
이 소환된다. 코딱지만큼이지
만 내 땅이 생기면서 엄나무
를 떠올린 것도 같은 맥락이
있을 게다.

룻가에서 구워 먹던 가래떡처럼, 아버지와 함께했던 유희 중의 하나
로 기억되는 것이 엄나무였다.

내가 엄나무 순의 진면목을 터득해 가는 동안 아버지는 더 이상 나
무에 오르지 못할 만치 연로해지셨다. 그럼에도 엄나무는 해마다 푸
른 순을 무성하게 매달았다. 더러는 몇 잎 거두고, 더러는 묵혀둔 채
봄날이 지나가곤 했다. 아버지가 떠나시고 친정 뒤란에서 거대한 숲
덩이처럼 생을 마감하고 있는 엄나무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
릿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다리가 시원찮아 한동안은 가보지 못했지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분명 뒷산 모처에 엄나무 몇
그루가 있었다. 잎사귀나 따면 모를까, 그걸 누가 캐어 가겠느냐. 분명 지금도 있을 것이다. 뭐 하
러 그걸 돈 주고 사느냐, 어린놈으로 캐오든지, 물오른 걸가지 하나 꺾어다 꽃아놓으면 될 것을. 창
원댁 할머니의 요지는 그랬다.

공짜라는 달콤함에 구미가 당겼다. 터주인 어르신은 부추김이 없었더라면 생각지도 못할 일이
였다. 도시에서처럼, 필요에 대한 해법은 오로지 지갑을 여는 것뿐인 줄 알았다. 다가오는 읍내 장
날 묘목시장을 찾는 것이 우리가 아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었으니까.

엄나무 순의 씹싸래한 향은 씹을 때마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소환된다. 코딱지만큼이지만 내 땅
이 생기면서 엄나무를 떠올린 것도 같은 맥락이었을 게다. 그런 엄나무를 야생으로 얻을 수 있다
니. 어르신의 귀땀에 혹할 수밖에 없었다.

어디쯤이냐고, 마치 산을 훤히 꿰고 있는 양 붙들고 늘어졌다. 과수원을 지나 산등성이를 넘으
면 된다고, 대수롭지 않게 답을 주셨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겨우 과수원 정도까지만 파악한 처지
였다. 딱히 짙이는 곳은 없었지만 산이라는 호칭이 무색할 만치 나지막한 야산이니 어렵사리 가
닿을 수는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나무가 지천 아닌 산이 어디 있으랴. 무저갱이 내 눈에는 그 높이가 그 높과 다르지 않을
터였다. 엄나무가 ‘나 엄나무’ 이름표를 매단 채 반겨 맞을 리도 만무하고. 찾든, 찾지 못하든, 밀
쳐야 본전이라며, 남편과 나는 내일 오전에 나서보자고 의기투합을 했다. ‘있으면 나도 하나 캐다
주든지.’ 합전댁 할머니는 후렴구처럼 한마디를 남기고 별 종을 때 영감님 일복을 빨아 낸다며 일
어서셨다.

그러겠다고, 넋죽 답을 놓는 우리 부부에게 미더운 구석이 보이지 않았을까. 시늉만으로 두어 걸
음을 떼는가 싶더니, 대뜸 돌아서며 ‘지금 가 보까?’ 하시는 거였다. 불감청에 고소원이었지만, 무
릎 관절이 부실해 고생하시는 것을 뵈니 아는 지라 선뜻 응할 수는 없었다. 어쨌거나 순식간에 내
일이 오늘로 당겨지면서 팔순 양쪽 두 어르신과의 장정이 시작되었다.

두 분께서는 낡은 슬리퍼에 헐렁한 고무줄 바지 차림으로 앞장을 서셨다. 평상복이다가 일복이다가 잠옷이다가 일순 아웃도어가 되는 것이 시골의 단순명쾌한 의생활인지라 남편과 나도 모자 하나씩을 비뚜름히 눌러쓴 채 주춤주춤 뒤를 따랐다.

내가 아는 엄나무의 정체성은 가시가 전부다. 길 없는 길을 헤치며 무조건 가시가 솟구친 나무만 찾았다. 그건 아카시고, 그건 망개나무고, 무식이 탄로 나는 순간을 머쓱하게 넘기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은 없나니. 산도 어제의 산이 아닌가 보았다. 반백 년이 넘도록 살아온 곳이라 손바닥 들여다보듯 흰하실 터이건만 창원댁 할머니는 연신 긴가민가의 늙을 해매신다. 줄개 둘을 거느린 노장^{老壯}들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나타나 주면 좋으련만,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다. 어찌어찌 한 그루를 찾긴 했으나, 이미 고사목이었다.

‘그단새 누가 캐 가뻘는 갑다.’

결국 엄나무 산행은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다. 바짓가랑이 사이로 도깨비바늘만 빼곡히 얹힌 채 오르막보다 내리막에 더 서툰 어른들을 보좌하며 산을 내려온다. 우리의 빈손이 머쓱하진지, 어르신들께서는 숨어 있는 두릅과 고사리의 서식지를 조곤조곤 전수해주셨다. 허탕에 대한 보상치고는 꽤 쓸쓸했다. 밀저도 본전 이상은 건진 셈이라 서운하지 않았다. 상황은 읍내 장날이라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없는 봄날 속에서도 엄나무로 하여 잠시 설레는 시간이었다.

잠시 쉬어가자며, 우리는 과수원 끝자락에 엉덩이를 걸쳤다. 널찍한 목정밭이 눈 아래로 펼쳐진다. 지난 가을 벼를 수확하고 묵혀진 논이다. 한 계절을 온전한 휴지로 보낸 땅도 푸릇푸릇 제 몸을 뚫고 오르는 생명들로 봄을 예비하고 있다.

‘저거 나시래이 아이가?’ 토박이말이라는 것이 생뚱맞을 때가 많아 가끔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생기는 한다. 그러나 오늘은 손톱만한 눈치코치로도 ‘나시래이’가 냉이의 이곳 말이라는 것쯤은 켈 수 있겠다. 똥 대신 닭이라고, 우리는 냉이를 캐자는데 뜻을 모았다.

그런들 맨손으로 무얼 하랴. 그나마 젊고 발 빠른 내가 얼른 호미를 가져올 테니 잠시 쉬고 계시라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언덕을 내려왔다. 챙 넓은 모자와 호미, 그리고 비닐봉지 두어 개를 챙겨 돌아오니 두 어른은 벌써 논바닥에 퍼지른 채 냉이 삼매경이시다. 그들에게 손은 손인 동시에 도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순간이다. 내게는 냉이를 캐는 일조차 노동인데, 일도 아닌 일을 하는 건 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신가 보다.

그들에게 손은 손인 동시에
도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
인하는 순간이다. 내게는 냉이
를 캐는 일조차 노동인데, 일
도 아닌 일을 하는 건 쉬는 것
과 다를 바가 없으신가 보다.



구부정한 어르신들과 나란히 등을 맞춘 채 냉이를 캔다. 겨울을 이긴 뚝심으로
한껏 물이 오른 밀동에 호미를 꽃으면 금세 허연 뿌리가 드러난다.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알찼을 시간이 실하게 만져진다. 손 빠른 어른들을 쫓아갈
수는 없지만, 봄을 캐는 내 손끝에도 힘이 실린다. 엄나무 아래 신바람으로 쪼그
리고 앉던 유년의 어느 하루처럼, 느린 봄날 한 컷이 오늘이라는 내일의 추억 속으
로 가만가만 저장되는 중이다.

글 문경희 수필가



부산예총 감사 신호국

- 제64회 부산시 문화상 공간예술 부문 수상 외 다수
- 제26대, 27대 부산건축가회 회장 역임
- (주)타오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부산예총 그리고 부산건축가회와는 언제부터 인연을 맺은 건가요?

1995년경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에 가입했습니다. 2004년 건축가회 총무를 맡으면서 예총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네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건축가회 회장을 했는데 그때 예총과 단위협회 등에 관해 두루두루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 부산예총에서 어떤 일들을 해오셨나요?

2016년부터 잠시 예총 부회장직을 맡으면서 12개 단위협회와 교류를 해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때 부회장직을 중도에 그만두게 되면서 해보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되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부산예총 감사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예총에서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 알고 싶었고 또한 '우리

건축가회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소견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당선 소감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로서 중책을 맡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총 감사는 처음이지만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 감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신가요?

물론 회칙에 주어진 감사의 역할도 충실히 하면서 예총과 12개 단위협회 모두가 화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조그마한 힘을 보태볼까 합니다.

그밖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동안 전임 감사님들의 노고에 폐가 되지 않게 감사 임기 4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리_이효민

부산예총 감사 조성범

- 한국문인협회 해양문학연구위원
- 부산문인협회 부회장
- 부산시인협회 회원



부산예총 그리고 부산문인협회와는 언제부터 인연을 맺은 건가요?

등단 이후 혼자 작품 활동을 하다 2010년 부산문인협회에 가입(시 분과)했는데 이를 계기로 예총과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는 문협 사무국장을 맡아 한국해양문학제·부산국제문학제 등을 기획해 개최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을 다했고, 2022년부터는 예총 감사로도 활동했습니다.

부산예총 감사를 연임하게 됐는데 소감 부탁드립니다.

어떤 조직이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시적이지만, 직전 감사 임기가 2년만 주어진 관계로 업무를 명확히 파악하거나 예총 발전에 기여할 기회가 부족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런 중요한 직책을 연임해서 말도록 신임하고 지지해 준 예총 10개 단위협회 대의 원께 감사드리면서,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 감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

신가요?

조직의 행정과 재무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일을 살필 때 중립적인 자세로 객관적 판단을 내리는 게 감사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의 바른 편성과 집행 그리고 규정 준수 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 다음은 예총의 발전과 각 단위협회 발전을 위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밖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모든 예술문화단체 중 가장 큰 대표단체인 예총의 위상에 걸맞게 현 제도(정관·규정 등)의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예술인 권익과 복지 향상, 단위협회와의 적극적인 교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르의 예술을 추구하는 단체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호응도가 높은 단체는 준회원 제도 등을 통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예총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아울러 언론매체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획·실행으로 일반시민들에게 예총을 알려서 예총이 모든 예술문화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정리_이효민

권철,

창조·해석·조화의 연기본질을 완성하는 연기자

- 극단 하늘개인날 대표, 한국연극협회 부산시지회장,
한국연극배우협회 부산시지회장, 금정구 예술협의회장,
부산경상대학교 겸임교수 등 역임
- 예인연극상, 올해의 배우상, 부산연극제 관객 인기상,
한국연극배우상, 부산연극제 최우수남자연기상 등 수상
- 현) 금정구 연극협회장, 극단 왓자지껄 대표,
부산예술대학 연극과 강사



중국에는 숱한 명소와 유적, 명품들이 있지만 중국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천안문광장을 그려 중국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는 에펠탑, 이집트는 피라미드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는 경우도 많다.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물은 무엇일까? 광안대교? 용두산공원? 해운대? 사람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부산연극의 상징은 무엇일까? 극단? 배우? 특정 작품? 이 또한 사람마다 다른 견해를 제시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산의 연극배우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는 누구일까? 의견이 분분할까 아니면 의견이 일치할까? 그 상징적 존재를 감히 권철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권철은 연기의 본질을 보여준다. 연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창조, 해석, 조화가 연기의 본질을 드러내는 적절한 단어이다. 캐릭터를 창조

하고, 대본에 대해 배우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하며, 연극의 여러 요소를 조화시키는 요소가 연기의 본질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권철은 창조, 해석, 조화 이 세 가지를 연기를 통해 잘 구현하였다고 본다.

권철은 1981년에 연기에 입문하였다. 젊은 시절, 잡티없는 하얀 피부에 뚜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넓은 음역대의 목소리 때문에 주변에서 배우하면 대성하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하지만 권철은 내성적이었고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배우가 되는 일은 거의 상상하지 않았다.

고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준 연극 초대권이 연극으로 가는 운명의 다리가 되었다. 담임 선생님도 이따금 배우의 길을 권하던 상황이었지만 권철은 공연예술을 감상한다는 생각으로 연극을 보러 갔는데 웬지 모를 이끌림에 연극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은 그 안에서 별이 되었다.

80년대에 연극을 시작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듯이 권철도 극단을 창단하고, 창단 극단에서 포스터 부치는 일 등을 하면서 연극과의 여정을 시작했다. 올해로 연극 입문 44년이 된다. 지금까지 210편 정도의 작품에 출연하였다. 80년대 초반, 부산에서 연극한 배우들 중에는 현재 유명한 텔런트가 된 여자 배우도 있다. 권철도 부산을 떠날 생각이 없지는 않았지만 부산을 떠나면 연극에서 멀어질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다가와 연극을 떠날 용기를 내기 어려웠다. 많은 작품 속에서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였지만 공연하는 날마다 자신만이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를 드러내고자 노력했다.

권철의 연기력은 98년 부산연극제에서 작품 〈아버지〉의 남박사 역할로 최우수 남자연기상을 수상하면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 99년에는 〈느낌, 극락같은〉 작품에서 함묘진역을 맡아 연극제 대상 수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함묘진은 작품 속에서 불상을 조각하는 최고의 장인이자 불상 조각가들의 절대적 스승이었다. 불상 조각을 배우는 제자들 사이의 첨예한 갈등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역할이 함묘진에게 주어졌는데 이를 완성도 높게 연기하였다. 당시, 〈느낌, 극락같은〉은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여러 곳에서 공연되었다. 권철의 함묘진 연기의 결정적 기여 때문에 부산만의 〈느낌, 극락같은〉이 완성되었다.

20여 년간 단단하게 쌓아 올린 권철 연기의 탑은 90년대의 기단 위에 2000년대의 층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어떤 때는 장식은 없으나 범접하기 어려운 석가탑 같은 연기를 자랑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장식적인 다보탑 같은 연기로 무대를 장악하였다. 모노극인 〈호랑이 아줌마〉는 서울 대학로에서 장기 초청공연을 하기도 했는데, 〈호랑이 아줌마〉가 다보탑 같은 연기를 보여 주었다면, 장식없이 화려한 석가탑 같은 연기는 중국작품 차오위[曹禺]의 〈뇌우[雷雨]〉에서 맡았던 주복원(저우푸위안/周樸園) 역할을 통해 나타냈다. 경제적으로 대업을 이룬 집안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애욕의 인간관계와 놓을 수



없는 본능적 인간사랑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에서 권철은 아버지 주복원 역할을 맡아 애욕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연기로 작품의 예술적 완성에 마지막 점을 찍었다. 다그치면서 물러나고 그렇지만 복수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애욕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인간적 면모를 모두 표현하였다. 서사의 근간인 갈등이 한 배우에게서 모두 표현되는 연기의 절정을 보였다. 세상에 다시없을 주복원이었다. 인간이 가진 욕망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분산시키는 역할은 배우들에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를 선명하게 분산시킨 후 다시 거둬들이는 역할은 어렵다. 권철은 다시 거둬들이는 역할까지를 소화한다.

주복원, 호랑이 아줌마를 넘어 권철은 2000년대 초반을 지나며 전승환, 이만희의 남자가 되었다. 지금까지 여러 배역을 연기 하였지만 극단 [전위]의 이만희 작품 공연물에서 권철은 다른 배우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경지에 도달하였다. 전승환 선생님이 더 살아계셨으면 이만희와 전승환 권철은 부산에 세 사람만의 마법의 연극성을 쌓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는 모노드라마에 대한 애착을 아직 놓지 못하고 있다. 자기만의 연기 캐슬을 더 공고히 쌓고 싶은 배우로서의 희망일 것이다. 아직도 계속되는 그의 연기 영역에 영원히 남을 또다른 역할이 있기를 기대한다.

글_심성고 부산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인물 사진_정지영

모든 시는
서정적 발아에서
시작된다

시인
최창도

- 1967년 <여성> '이상한 매력' 발표로 작품 활동
- '시와 숲' 동인 창립회장, <노동월보> 상임논설위원, 칼럼리스트
- 부산문인협회·한국바다문화회·새부산시인협회 자문위원, 경일문화원·목요문화원 원장,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 역임
- 부산문학상, 부산시인협회, 설송문학상 본상, 부산예술 대상 수상
- 시집 『우리 시대의 명상과 물음』 외 7권, 칼럼에세이집 『인생 그리고 인연과 관계 사이』



‘토박이’는 어감부터가 정겹다. ‘본토박이’ 즉, 조상으로부터 3대째 한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온 사람이다. 농업이 기반이던 시대와는 달리 도시화, 공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도시 지역 토박이는 그리 흔치 않다. 부산토박이, 서면토박이, 동천토박이로 잘 알려진 최창도 시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동천은 물이 많았다고 한다. 서면교차로 일대의 편리한 교통 때문에 동천 지류인 가야천과 당감천, 부전천 등 산업화의 기초가 된 대기업들의 공장 폐수나, 가축 사육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밀려들기 전 이야기다. 서면토박이인 시인께 부산의 중심지 서면과 동천은 어떤 의미일까.

나에게 동천은, 하나의 발아가 씨앗이 되고, 씨앗이 씨방이 되고, 꽃이 피어 열매가 되고, 나무가 자라 울울창창 숲을 이루는 것과 같은 곳입니다. 동천이 있는 해화여고 앞에서 태어나 오래도록 살았고, 호 또한 ‘동천(東川)’으로 정할 만큼 소중한 곳이지요. 저의 시에도 동천은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동천 지류인 부암동에서 살고 있으니 81년을 오롯이 함께한 터전이고 제 삶의 원천이지요.

저는 여러 일간지에 칼럼을 많이 발표했어요. 특히, 동천에 관한 칼럼은 <국제신문> 박창희 기자의 권유로 두 번에 걸쳐 신문 전면에 연재를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과 동천에 관한 토론회도 열었는데 동천토박이 자격으로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지요.

동천은 부산의 젖줄이었어요. 복개를 해서 그렇지 옛날 그대로를 간직한 곳은 동천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천 물줄기가 사라졌다고 해요. 발원지가 백양산 자락인데 부암동과 가야 쪽에서 내려오던 물이 발으로 가거나 상수도가 없는 마을에서 개인적으로 물을 끌어다 쓰다 보니 물이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요. 예전의 동천은 자라와 거북이 공존하던 곳이었어요. 만조 땐 바다에서 거북이랑 물고기가 우리 집 앞에까지 올라오곤 했었지요. 그랬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물이 없다고 하니 많이 안타깝습니다.

토박이답게 선생의 동천에 대한 자량과 추억 소환은 끝이 없으시다. 1994년 첫 시집 『별들이 숨 쉬는 하늘』 이후, 2015년 여덟 번째 시집 『우리 시대의 명상과 물음』을 낸 후 9년 동안 시집을 내지 않으셨다. 이유가 있었다.

4년 전 집사람을 하늘로 떠나 보냈답니다. 함께 가는 하나의 끈이었던 인생의 배우자를 잃고 그 충격으로 책을 낼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올해 부산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수혜를 받게 되어 9년 만에 시집과 칼럼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칼럼집만 내려다가 아까운 시들이 너무 많아 시집도 내기로 했지요. 제 시집의 시는 늘 80편 수록을 주장합니다. 칼럼집은 2008년 칼럼에세이집 『인생 그리고 인연과 관계 사이』 출간 후 두 번째입니다.

아마도 부산의 시인들 중에 제가 칼럼을 제일 많이 썼을 거예요. 언론에서도 인정할 만큼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2010년 11월 26일, <부산일보>에 기고한 ‘부끄러운 사랑의 열매’는 반향이 대단했어요.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 사건의 비리를 개탄한 글로, 국민들이 불우이웃돕기 운동의 일환으로 모은 십시일반의 성금과 기부금을 모금단체가 치출한 방법으로 유용하며 국민을 우롱한 내역을 보며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거든요.

“... 공신력이 있어야 기부나 모금에 협조하는 분들에게 자존심도 배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을 연말엔 어쩌면 상의에 붙이고 다닐 ‘사랑의 열매’가 자못 부끄러워 질 것 같아 어쩌나.*”

-지역의 빛으로 독자의 희망으로- (마지막 부분 인용)

선생께서는 시와 수필 창작을 강의하는 경일문화원을 1999년에 열어 2019년 폐업했다. 많은 문예교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것과 달리 20년 동안 꾸준히 이어왔다. 경일문화원을 열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문예부장을 했고, 문학을 하면서 인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1959년^(16세) 당시 문사들의 요람이었던 『학원』지에 시 「수확」을 투고, 책에 게재되면서 시인의 길에 들어선 셈이지요. 같은 해, 최계락 시인이 계시던 ‘국제신보(국제신문 전신)’에 시 「촛불」을 투고하였고, 1960년대 시를 발표하기도 했지만 생활에 쫓겨 정식 등단 절차는 동년배 시인들에 비해 늦은 편입니다.

김석규 시인과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故 임수생 시인과의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우리들은 일찌감치 문예를 경험하며 실력을 쌓아 문단에 들어온 정통파였는데, 실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문인협회, 시인협회 회원이 되더라고요. 글을 보니 너무 수준 미달이라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더군요.

정식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 문단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9년 서면 롯데백화점 앞 ‘체크 커피숍’에서 여성 2명(수필·장○자, 시·검○화)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 했던 강의와 지도를 바탕으로 등단까지 하게 되었지요.

처음엔 ‘경일문화회’라는 이름으로 세무서와 교육청에 신고하고 정식으로堂堂하게 창립을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전무후무한 일이었지요. 문예 강좌 인기가 너무 좋아 주·야간반을 개설, 50여 명이 수강을 하기도 했어요. 20년간 문예창작교실을 지속하면서 아무에게나 수료증을 주지는 않았답니다. 문학적인 소양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만 수료증을 주다 보니 원망도 많이 들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나만의 고집이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경일문화원에서 7년 동안 공부를 한 수강생이 있었는데 폐업을 한 후에 수료증을 챙겨주기도 했어요.

오랫동안 작가의 길을 걸어오셨다. 선생께 시는 무엇이며, 독자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작가로서의 보람과 아쉬움도 있었으리라.

모든 시는 서정적 발아에서 시작됩니다. 시는 감정과 감성, 심성에서 오는 정서의 교감에 상징성을 가미한 은유로 절제와 압축을 웃머리에 두는 문학 장르이지요. 나의 시는 내용상으로는 상징성과 은유, 드넓게 표현하자면 향토미를 가미한 삶의 본질을 추구합니다. 나의 시는 쉽습니다. 중·고등학교 작문법처럼 누구나 쉽게 읽고 공감하기를 바라지요. 기존 언어의 의미구조를 벗어난 해체시나 초현대시처럼 난삽하거나 난해하여 사전을 검색해서 읽는다면 그건 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람이라면, 사회를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문학적인 주제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으로 나의 생각을 남겼으니 내가 떠나도 나는 남을 수 있다는 것이 보람이겠지요. 인터넷에 떠다니는 글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아쉬운 점이려면, 내가 문인들이 싫어하는 면모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작가가 작품으로 환원하지 않고, 정치인들처럼 말로만 남 앞에서는 겸손한 척하는 비굴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울 때

가 있어요. 자기 역할과 생활을 문인답게 처신하며 당당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정치는 목적이 있지만, 문인은 글을 잘 써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안정시켜야 함에도 일부 아류들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지금은 낙서공화국, 애니메이션공화국이라는 점입니다. 서정을 모르고는 시가 아닙니다. 낙서처럼 끄적인 시가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지역 문인들의 시집은 서점 한 귀퉁이에 밀려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도서에 있는 제 시집을 몽땅 수거해 왔답니다.



삶은 끝없는 물음과 명상의 연속이다. 만만찮은 난제와도 조우한다. 삶을 결론 짓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많은 시 중에 대표 시로 꼽는 건 무엇일까? 망설임 없이 『우리 시대의 명상과 물음』(두손컴, 2015) 표제 시를 꼽는다. 그 일부를 인용한다.

“말과 말 사이에 놓이는 체온의 눈금만큼/ 그대의 하루는 늘 쓸쓸해서/ 물이끼 아찔한 빛들과 어울리면/ 거룩한 열매이듯 비로소 소통되는/ 안과 밖의 여문 말씀들 (중략) 오늘도 긴장을 나누어가진 햇살들의 무늬들/ 저 푸른 강 눈썹미에 얹히는/ 목마 태운 그대의 한 시절도/ 무지개 깊은 사연 하나 가지겠네”

시인은 묻는다. 우리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삶의 화두는 무엇이며, ‘우리 시대의 명상과 물음’은 과연 무엇일까.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물음은 어쩌면 인류가 지속되는 한 영원할 것이라 생각된다. 말하자면, 시적 표제어가 되는 여러 사안들을 현재의 삶과 정서의 교감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자연 안에서 그 해답을 추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인의 눈에 걸려든 모든 현상과 사물은 모두 시가 될 수 있다. 작은 풀꽃으로부터 먼 우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둘러싼 일상의 자각과 감각으로부터 시는 발아된다. 자연에서 느낀 서정성을 시의 밑바닥에 깔며 사람과 문화를 아우른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생각들을 거느리고/ 나무들의 나이테를 헤아리며/ 수척한 세월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전언하는 최창도 시인!

언제나 자신 있게 시를 쓰며 단수필과 칼럼의 경계를 넘나든다. 여덟 번째 시집과 두 번째 칼럼집을 기대하는 까닭이다.

글 사진_노옥분 시인

No. 27

원동의 봄

서향 김경희

산내의 숨겨진 봄이 자박 자박 오더니
순간만 매화 건드려 불꽃처럼
원동마을 숲으로 향들이 놓고
아무도 모르게 살짝 걸려도 하네

이제 봄이 뒤쫓거니와
청도 미나리 밭에 들러
미나리 따는 여인들의 영동이를
한 바퀴 휘 돌더니
미나리 뿌리채 흔들어 봄아 놓고
저 혼자 아무도 모르게 떠날 채비 한창이네

작가노트 | 겨우내 얼었던 산천이 봄으로 다 풀리고 따라서 우리네 마음도 풀려서 한껏 신이 난 따뜻한 마음으로 옮겨본 글입니다. 새파란 미나리도 봄이라 더없이 싱그러운 봄, 봄이 정말 좋아 아이들같이 괜히 웃음만 나옵니다.

글_김경희 시인, 부산문인협회 회원

RE: VIEW

- 미술** 세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드는 어떤 부지런한 의식
손몽주 '떠다니는 조각들 : Floating Sculptures' _ 이지원
- 연극** 비극적 인간상과 민족적 정서를 담은 연극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_ 김민수
- 영화** 유쾌한 분위기로 치매 노인들의 삶을 묘사하는
〈장인과 사위〉 _ 김민우

세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드는 어떤 부지런한 의식 손몽주 ‘떠다니는 조각들 : Floating Sculptures’

글_이지원 큐레이터(제이무브먼트)

부산 수영구의 유니랩스 갤러리에서 손몽주 작가의 개인전 ‘떠다니는 조각들 : Floating Sculptures’
이 2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진행되었다.

여러 비엔날레와 전시 공간에서 보았던 손몽주 작가의 지난 작업들은 특정 위치에서 인공물, 혹은 기계 생산된 공산품으로서의 오브제(고무밴드, 부표, 어망 등)를 강렬한 색과 함께 드러냄으로써, 장소-조건적Site-conditioned이진 않아도 다분히 장소-특정적Site-specific이었는데, 분명 그의 작업의 사유思惟는 관람자와 설치물, 그리고 이 둘이 존재하는 장소 사이 삼차원적 좌표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전시에서는 장소의 제약과 그 경험적 조건에서 다소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첫 번째 전시실에서, 작가는 일정 단위의 곡선과 직선을 교차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패턴의 형태와 다채로운 색상이 특징적인, 거울과 스테인리스 금속을 이용한 조각들을 벽면에 걸어 둔다. 엄밀히 말해 기존의 ‘작업’보다는 상품화된 아이콘, 다시 말해 ‘작품’으로 부르기에 더 어울리는 모양새다. 그리하여 충분히 화이트큐브에 어울리는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손몽주의 ‘떠다니는 조각들’이 제도비판적 미학에서 제도공간에서의 유통이라는 측면으로 나아간 미니멀리즘의 발걸음을 그대로 답습하는 듯하다. 그러나 위층의 세 번째 전시실로 올라가면, 1층의 작품과 비교했을 때 좀 더 거칠고 모난, 채집된 오브제들과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오브제들, 드로잉들이 뒤섞인 전시를 마주하게 되고, 여기에 이르러서야 마치 잃어버린 미싱링크Missing Link를 되찾은 듯, 작가의 대형 설치 작업들과 연결되는 그의 언어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니, 층계를 두고 양분된 두 전시—하나이지만 두 개인 듯한—의 병치並置는 흥미롭게도 작가의 ‘떠다니는’ 여러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장치처럼 보이기도 한다. 1층의 수려하게 마감된 조각들이 손몽주라는 작가 개인이 계속 두드려야만 하는, 미술과 현실 세계에 대한 끝없는 대화이자 타협점이라면, 2층의 투박한 오브제와 드로잉들은 작가가 스스로의 작업 세계를 어떻게 확장하고 지속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공간 스케치이자, 이번 전시의 본편이라고 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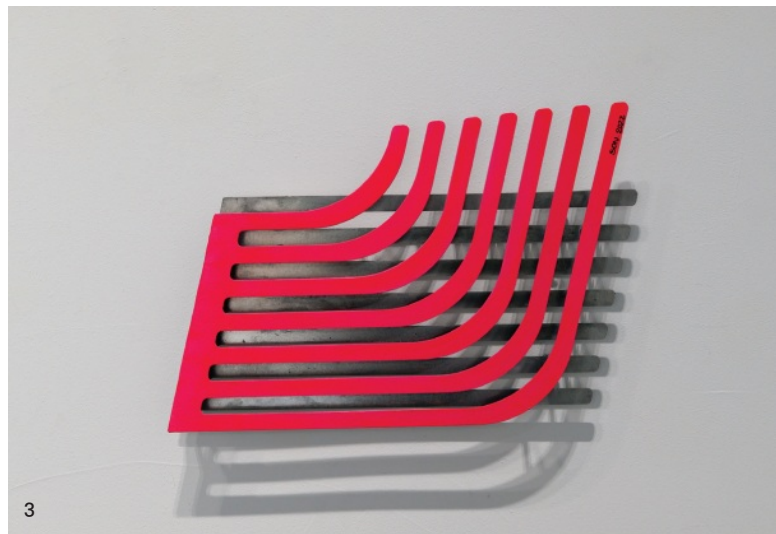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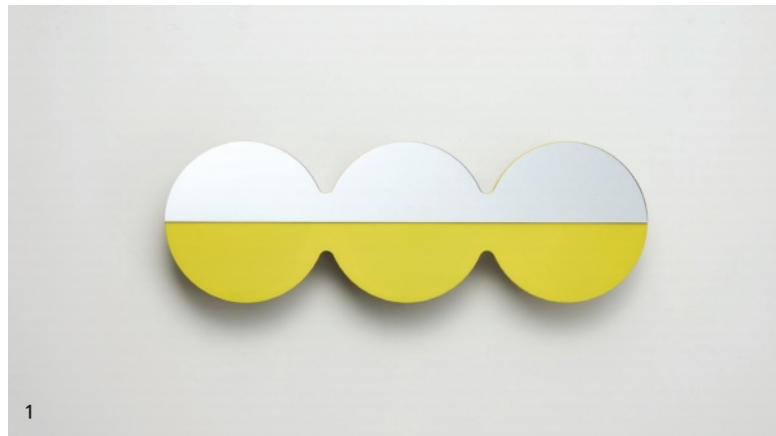
을 것이다. 작가가 오브제를 선별해 모으고, 그것을 공간 속에서 배치하고 조화시키는 일련의 작업 방식은, 세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드는 어떤 부지런한 의식이 아닐까. 파도에 휩쓸리는 부유물처럼, 언제 사라지고 잊힐지 모르는 ‘나’의 경험과 인식을 주위 동시대에 각인시키는 과정, 그것이 품_ㅁ이 아니라 업_ㅁ으로서의 미술이다.

미술이 반드시 반_ㅁ자본주의일 필요는 없음에도, 오늘날 우리가 ‘실험적’이라 치켜세우는 많은 예술 형식들은 필연적으로 그곳을 향해 나아간다. 작가로서 ‘업’의 성공이 반드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 반대로 작가가 부_ㅁ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작가적 성공이라 치부할 수도 없다는 점을 유념하면, 그 균형을 찾아가야 하는 그들의 끝없는 고행에 고개가 숙여질 따름이다.

“이 시대에 예술을 한다는 것은 불확실성에 맞선다는 의미이다. 그 삶은 회의와 모순으로 점철되어 있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뿐더러, 청중도 보상도 없을지 모르는 무언가를 무모하게 행하는 삶이다.”¹⁾

그렇기에 전시장에서 관객의 의무란, 의미 없는 텍스트나 꾸밈말의 나열에 휘둘리지 않고, 작가의 작업이 얼마나 동시대성Contemporaneity을 반영하며 그것에 대해 발화_ㅁ하려 하는지 충분히 고찰하며 지켜보는 것이 아닐까. 이제 또 다른 공간에서, 손몽주 작가의 다른 작업들이 어떤 이야기로 재차 이어질지 기대해 본다.

1) 데이비드 베일즈, 테드 올랜드, 『예술가여, 무엇이 두려운가! ART & FEAR』, 임경아 옮김, (루비박스, 2012), 16-18.



비극적 인간상과 민족적 정서를 담은 연극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글_김민수 극작가

극단 [어니언킹]은 2024년 창단 20주년을 맞아 첫 작품으로 연극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최인훈 작, 전상배 연출, 런닝타임 160분(인터미션 포함), 공간소극장, 2024. 3. 1. ~ 9.)를 무대에 올렸다. 이 연극은 2022년부터 시작한 최인훈의 희곡 연작물을 공연화한 세 번째 작품이다.

무대의 막이 오르면 스멀스멀 안개가 피어오르는 몽환적 분위기의 산속이다. 길을 잃은 나무꾼이 불빛을 따라 외딴 집으로 들어선다. 옛날이야기의 단골 메뉴가 그렇듯이 예쁜 처자가 등장한다. 그녀는 그에게 저녁을 먹고, 하룻밤 부부의 연을 맺는다. 예쁜 처자는 승천에 실패해 좌절한 천 년 묵은 뱀으로 평강공주의 전생이며, 그의 승천을 좌절시킨 나무꾼은 현생의 온달이다.

꿈(전생)에서 현실로 돌아온 온달은 궁에서 축출당한 평강공주를 만나 결혼한다. 온달은 평강의 도움으로 바보에서 비범한 인물로 재탄생하며, 평강은 온달을 앞세워 정치적 야망을 펼쳐 나간다. 장군이 되어 전장에 나간 온달은 내부의 적이었던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평강도 적들에 의해 제거된다.

연극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는 『삼국사기』 열전 편 ‘온달전’에서 모티브를 따오고, 기본 이야기 앞뒤로 ‘꿈 장면’과 ‘평강공주의 죽음’을 덧붙여 서사를 확장했다. 설화적 소재와 민족의 정서에 흐르고 있는 인연 법칙을 적용하

여 비극적 인간상을 제시하였다. 영웅과 로맨스의 주인공으로서 1400년간 강력한 생명력을 지녔던 온달과 평강공주의 성격이 그와 상반된 운명에 휘둘리는 나약하고 힘없는 인간상으로 재창조된 것이다.

전장에서 죽어 귀신이 된 온달은 평강에게 찾아와 말한다. “나의 고구려는 당신, 당신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당신을 위해 싸웠다. 하지만 그 삶은 하루도 괴롭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주검조차 평강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으니, 온달의 삶과 죽음 전체를 관장하는 것은 평강이다.

평강은 온달의 죽음 이후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 뒤늦게 깨닫는다. 셰익스피어 류 극시의 주인공 ‘햄릿’이나 ‘리어왕’을 연상하게 만드는 평강의 장황한 독백은 시간과 어긋난 세월, 간극, 꿈에 대해 한탄하며 비극적 인간상을 보여준다.

작품 전반에 흐르는 정조는 인연의 인과율, 윤회사상이다. 전생과 현생을 가로지르는 인연의 인과율로 설명하자면 온달의 현생은 전생의 뱀(평강)에게 지은 죄값을 치르는 보속의 시간이었다. 평강(뱀)은 현생에서 온달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요, 희생양으로 삼고, 그의 주검까지도 관장해 죄값을 돌려받았다. 두 사람 사이의 전생 부채는 사라졌다. 그래서 평강공주도 죽음을 맞는다. 악연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관계는 인연 법칙의 인과율에서 소멸했다. 후생이 있다면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관조의 정조가 배여 있는, 이 매력적인 문장을 되뇌게 하는 지점이다. 무대에 남은 자는 온달의 어머니, 한 사람이다. 눈 오는 풍경 속에서.

무대는 몽환적인 느낌으로 시작해 끝날 때까지 열한 명의 배우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열연하였다. 평강공주 역의 이태경 배우가 온달의 시신을 담은 관을 붙잡고 오열하는 장면에서는 관객석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배우의 연기가 관객의 정서를 움직인 것이다. 온달 역 김정환 배우의 분장은 비범한 인물로 보이는 마스크였다. 한 무대, 한정된 시간 안에서의 공연에 분장을 쉽게 고칠 수는 없었겠지만 '순박한 바보, 온달'과 '비범한 인물, 온달' 사이의 차별화를 느낄 수 없어 아쉬웠다. 몇몇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대사가 있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변화하는 입체적 인물인 온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다.

대사 역의 유상훈 배우는 시원한 발성이, 어머니 역의 황미애 배우는 절구에 곡식을 다루는 손연기가 찰떡이었다. 시녀 역의 하선이 배우, 지휘 장교 역의 서원오 배우, 전령 장교 역의 박호천 배우의 연기도 좋았다. 그 외 배우들의 연기, 무대 구성, 조명, 의상 등 스태프들의 수고도 돋보였

다. 그중 하나, 극초반, 바닥에 투사된 영상으로 바닥을 기는 초록뱀의 형상도 기억에 남는다.

최인훈 희곡 연작물에서 그간 보여주었던 연출의 희곡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나 재해석을 이번 작품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예를 들면 전작들의 인트로에서 보여준 '경쾌한 봄을 표현하는 동물로 분장한 배우들의 몸 동작'이나, 무대 '바깥의 불안한 환경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검은 옷을 입은 배우들의 짐승 소리' 같은 것 등이다. 희곡 원작의 충실한 재현도 좋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한 연출의 시각을 무대에서 느껴보고 싶은 것도 연극을 보게 만드는 기대감 중 하나다.

연극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는 조곤조곤 들려주는 옛이야기, 혹은 수채화 느낌의 문학적 정서를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운명에 끌려다니는 비극적 인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인간은 인연에 따라 만남과 이별이 결정된다는 민족적 정서를 담고 있다. '부부는 전생의 원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속담(경구)이 생각나고, 나와 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을까, 둘러보게 된다.

유쾌한 분위기로 치매 노인들의 삶을 묘사하는

〈장인과 사위〉

글_김민우 영화평론가

처가 관계, 시댁 관계는 가족 체계 안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이다. 남보다는 가깝지만 가족이라고 묶이기엔 어쩐지 먼 듯한 그런 사이. 동성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장인과 사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더욱 그렇다. 물론 사람은 모두 다르지만, 각자 남성 혹은 여성으로써 살아온 세월이 있음에도 서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관계이기도 하니까. 그런 점이 매력적이었는지 그동안 매체에서 (보통 부정적으로 그려지긴 하지만) 이들 관계를 무수히 다루어 왔다. 특히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는 한국 사회의 여러 단면을 보여주는 소재로 애용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 〈장인과 사위〉(2024, 감독 최이현)의 인물 설정은 독특한 구석이 있다. 그건 단순히 성별 전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삼류 배우인 박진기(지대환)가 치매를 앓고 있는 장인 최규만(동방우)을 돌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 〈장인과 사위〉는 우리에게 익숙한 갈등 구도로 영화를 전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방적인 사랑으로 사위를 대하는 장인이 한쪽에 있다. 치매가 걸리기 전의 규만이 진기를 만나는 오프닝만 봐도 그들은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였음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오직 치매라는 질환만이 그들 사이를 갈라놓는 요소다. 치매는 자신의 인식마저 뒤흔드는 병이다. 그럼에도 규만의 사위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진기의 태도일 것이다. 진기는 장인을 돌보기가 싫어 다른 동네에 버리기까지 한다.(물론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문제적이겠지만, 영화 안의 상상이라면 이해가 간다. 실제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 중에는 이런 상상을 해본 경험이 꽤 있지 않을까. 주연이자 〈장인과 사위〉의 제작자이기도 한 배우 지대환 씨는 치매를 앓은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았다고 하니, 그 진정성에 의문을 표할 수 없으리라.) 그런데 웬걸? 장인은 어디서 만났는지 다른 치매 노인들을 데리고 온다. 혹 떼러 갔다, 혹을 붙인 꼴. 진기는 좌충우돌 끝에 다른 치매 노인들을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를 보곤 달라진다. 영화 초반, 장인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철없는 남성에서 가족이 주는 사랑을 인식할 줄 아는 남성으로 거듭난다. 그것도 자기를 잃어버린 장인어른을 통해서 말이다. 그러니 영화의 끝은 규만의 정체성을 찾아주려는 여정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장인의 사랑을 깨달은 진기가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은 잠시나마, 그가 사랑하는 또 다른 대상인 바다에서 함께하는 것이었을 테니 말이다.



그 과정에서 <장인과 사위>가 치매를 다루는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기존의 창작물에서 치매를 다루는 방식은 대부분 부양가족의 어려움, 치매 환자 본인의 고통 등 어둡고 우울한 묘사가 주를 이루었으나, <장인과 사위>는 그렇지 않다. 영화는 대부분 유쾌한 분위기로 치매 노인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 자칫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전술했듯) 치매를 앓는 장인어른을 모시며 본인이 느꼈던 지점¹⁾, 즉 그렇게 우울하지만은 않았던 본인의 경험에 대한 솔직한 표현이기도 하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치매 노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장인과 사위>의 인물들이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설정과는 달라 관객들에게 기대와 다른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 그것이 낯설고 불편할 순 있어도, 한 번쯤은 생각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할 것이다.

<장인과 사위>에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부산'이다. 영화의 배경인 것도 그렇지만 지대한 씨 역시 부산 출신인 테다 본인이 직접 부산에 제작사를 설립하여 제작한 영화이기 때문이다. 부산이라는 지역 특색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장인과 사위>는 외려 부산의 정서, 풍경, 사람이 만들어 낸 영화가 아닐까 싶다. 영화 안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부산의 정서처럼,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는 사위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장인과 함께 길을 나선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길에는 장인의 또 다른 고향인 바다가 있다. 언제나 꿈을 향해 달려가는 박진기, 아니 지대한 역시 마찬가지다. 고향을 떠나 상경한 꿈 많은 청년이었던 지대한은 이제 중년이 되어 고향을 찾아와 여전히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 한다. 부산은 바로 그런 도시다.

¹⁾ <https://www.maxmovie.com/news/436482> 참조

예술치료 IV

치매 노인의 사회적 행동 증진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사회적 행동이란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상호 행동으로써 언어적인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표정, 행동, 의복 예절 등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까지 포함한다(Dastoor, Norton, Boillat, Parpadopoulou, Minty, & Muller, 1975, p. 466).

치매 노인의 경우, 기억 저하와 지남력 소실로 인한 인지 기능 장애가 일상생활에서의 수행 능력과 행동장애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문제행동 즉, 이상행동이 빈번히 나타난다. 주로 반복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배회 행동, 언어적 이상행동, 성적 이상행동, 수집벽, 불결행위, 이식食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문제행동들은 결국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언어적·비언어적인 소통 문제를 일으킨다.

이번 호에서는 필자가 2017년에 주치료사로 진행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중 치매 노인의 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킨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음악, 미술, 동작, 사진을 적용한 30회기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7명은 전문의로부터 경·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신체적 활동이 가능한 치매 노인들이다. 아래의 <표 1>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 노인들의 기본 정보이다.

참여자	성별	연령	치매 종류	치매 진단
A	여	81세	알츠하이머	4년
B	여	91세	알츠하이머	4년
C	여	84세	파킨슨병	4년
D	여	81세	알츠하이머	8년
E	여	74세	알츠하이머	3년
F	여	75세	파킨슨병	3년
G	여	86세	알츠하이머	3년

〈표 1〉 참여자들의 기본 정보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7명의 참여자는 집단 내에서 여러 사회적 행동 변화를 보였는데 대표적 변화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대상	내용
집단 내 동료	1. 행동을 관찰함 2. 행동을 모방함 3. 행동을 수정함 4. 작품이나 활동에 대하여 평가하고 칭찬함 5. 활동을 독려함 6. 신체적 접촉이 증가함 7. 자신의 개인사에 대하여 이야기함

〈표 2〉 집단 내에서 치매 노인의 사회적 행동 변화 내용

1. 행동을 관찰함

동료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은 동료나 그 행동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회기까지 자신의 작품에만 집중하고 다른 동료의 작품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참여자들이 7회기부터는 다른 동료들의 행동과 작품을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7회기 〈1월 달력 만들기〉에서 D는 활동 도중 E와 G의 스케치북을 쳐다보았고 C는 B, D, E의 완성된 작품을 유심히 관찰하였다. 8회기 인사노래에서 A는 비록 동작을 잘 따라 하지 못하였지만, 옆자리에 앉은 E의 동작을 관찰하며 팔을 움직이거나 마주 앉은 B와 G의 움직임을 쳐다보며 따라 움직였다. 또한 A는 9회기에 노란색 에그 셰이커를 가지고 자신과 같은 색을 가진 동료가 있는지 주

위를 찾아보았다. 10회기에서 C는 가족 그림을 완성한 후 B의 가족 그림을 관찰하고 그림 속 가족이 누구인지 물어보기도 하였다. 11회기에서 B는 자신의 족두리를 다 만든 후 다른 동료들의 활동을 관찰하였고 치료사가 B의 작품을 보고 “잘 만드셨네요, 어르신!”이라고 하니 옆자리의 E가 B의 작품을 자세히 관찰하였다. 곧 E는 치료사에게 “선생님이 내 족두리에도 예쁜 거(스티커) 하나 붙여주이소”라고 말하면서 본인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선택해서 치료사에게 부착해야 할 위치를 알려주었다. 치료사가 스티커를 붙이자 E가 치료사의 양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특히 E는 14회기 이후부터 다른 동료들의 작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눈에 띄게 관찰되었다.

2. 행동을 모방함

9회기 〈노래와 함께 율동을〉에서 A는 B의 손을 쳐다보면서 움직임을 따라 하였다. 11회기에서도 A는 옆에 앉은 D의 족두리를 쳐다보면서 자신의 족두리에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기 시작하였다. C가 옆에 앉은 G에게 족두리 쓰는 법을 알려주자 A는 그 모습을 관찰하면서 스스로 족두리를 쓰려고 시도하였다. 17회기에서 C는 D가 그린 태극기를 쳐다보면서 자신의 태극기에 색칠을 시작하였고 19회기 〈종이 찢기〉 활동에서 A가 “나는 찢기 싫은데!”라고 말하자 G도 A를 쳐다보며 종이 찢기 활동을 주저하였다. 이때, 옆에 앉은 F와 D의 “해 보이소~재미있습니더”라는 말에 모든 참여자가 활동에 임하였다. 자신의 작품에만 집중하던 D도 다른 동료들의 작품을 중간중간 감상하면서 색연필의 색상을 선택하여 태극기에 색칠을 이어나갔다. G도 옆에 앉은 C와 F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색을 선택하면 좋을지 물어보면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였다.

3. 행동을 수정함

9회기 〈건강 박수〉 치기에서 A가 반대 방향으로 활동을

하자 D가 바른 손동작으로 수정해 주었으며 10회기에서 C가 가족의 눈썹을 파란색으로 그리자 D가 “눈썹은 까만색이지요”라며 눈썹 색을 수정해 주었다. 15회기에서 C는 B가 바구니에 탁구공 넣는 것을 어려워하자 “쪼매 바구니 가져 가보이소(조금만 바구니 가까이 가보세요)”라고 요령을 가르쳐 주었으며 A가 볼링공을 던지자 “공을 던지지 말고 굴리면 작대기가 팍 넘어집니다”라고 B와 A의 행동을 수정해 주었다. 21회기 시작 과정에서 치료사가 열세 번의 손뼉치기를 유도하였지만 A가 열네 번의 손뼉을 쳤다. 치료사가 열세 번 손뼉치기를 한 번 더 유도하자 A 옆에 앉아있던 F가 열세 번의 손뼉치기가 끝나자마자 A의 손을 양손으로 잡으면서 “행님~마 참으소”라고 말하여 모두 크게 웃었다. 21회기 <합주> 활동에서 소고 팀 연주가 끝나고 에그슈ੈಿಕ어 팀이 연주를 시작할 때 D가 소고를 치려고 하자 C가 D의 손을 잡으며 “우리 아이요. 기다리보소!(우리 아님니다. 기다리세요!)”라고 행동을 수정해 주었다.

4. 작품이나 활동에 대하여 평가하고 칭찬함

11회기에서 A, B, C, D, E, F는 G가 만든 족두리를 보고 예쁘다고 칭찬을 하자 G가 활짝 웃었으며 25회기 <전국 노래자랑> 활동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동안 나머지 6명 모두 서로에게 칭찬하고 큰 박수로 격려하였다. 12회기 <강강술래> 활동에서 C가 개사하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E가 “행님은 강강술래 전문가네요”라며 칭찬하고 F는 “이 동네 저 동네 가르치려 다니면 되겠습더”라고 격려하였다. 20, 27, 28회기에서는 동료들의 장점을 두 가지씩 찾는 활동을 하였는데 C는 “행님이 있어서 좋습니다!”, E는 “친구가 맨날 내 손을 잡아줘서 감사합니다!”, F는 “행님이 와이당을 잘해서 즐겁습니다”, G는 “노래를 잘 불러서 귀가 즐겁습니다” 등 참여자 모두 동료들의 장점을 두 가지 이상 말하면서 서로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였다.

5. 활동을 독려함

3회기 인사노래 끝맺음에 A가 “아, 내사 마 못한다(아, 나는 못한다)”라고 대답하자 옆에 앉은 F가 “최고다, 최고다”라고 대신 말해줌으로써 A의 활동을 독려하였다. 10회기에서 E가 “시어무이 얼굴이 와이리 안 떠오르노”라고 하자 F가 “마 비숫하게 그리소”라고 활동을 독려하였고 15회기 <명랑 운동회>에서 D의 순서에 C와 E가 “잘한다, 잘한다”라며 손뼉을 치면서 응원하였다. 이에 치료사가 “어르신들, 순서대로 한 분씩 나올 때마다 함께 응원해주세요”라고 응원을 유도하자 나머지 6명의 참여자는 큰 박수로 응원하였다. 그리고 B가 탁구공을 자꾸 떨어뜨리자 E는 “떨어지는 공은 주우면 되지요”라고 말하면서 B가 계속 활동하도록 독려하였다.

6. 신체적 접촉이 증가함

1회기에서 옆 사람과 손잡기를 주저하고 활동 중 옆 사람과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던 참여자들이 회기가 진행될수록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6회기에서 복지관에 제일 일찍 도착한 C가 신발을 벗고 뒤따라 들어오는 F를 보자 오른손을 잡으며 “왔는교”라며 인사를 하고 G가 들어오자 “어서 오소”라며 두 팔을 잡았다. 12, 18회기의 노래 부르기 활동에서도 G가 F의 손을 잡고, B가 D의 손을 잡고 박자를 맞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22회기 시작에서 치료사가 “어르신들, 옆자리에 계신 친구에게 칭찬하고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덕담을 유도하자 참여자 모두 오른쪽 혹은 왼쪽에 앉은 동료의 손을 잡고 “오래 삼시더”, “건강하이소”, “맨날 얼굴 보니 좋습니다”, “행복하세요” 등의 덕담을 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마지막 회기까지 계속 관찰되었다.

7. 자신의 개인사에 대하여 이야기함

8회기 시작에서 1940~70년대 동영상을 시청할 때 C가 맷돌 돌리는 동작을 취하며 어릴 적 집안 환경을 이야기했

으며 F는 다이얼 전화기를 보자 어린 시절 가족들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0회기의 가족 소개 시간에는 E가 “어릴 때부터 친정 대식구 밥을 내가 다 해줬다 아이가. 그때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골병이 들어서 지금 이래 아프다 아이가. 일이 참말로 지긋지긋하데이”라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자 A는 “나는 산에 나물 캐서 식구들 먹었는데”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곧이어 A가 E에게 “동생은 눈이 와 그래 됐노?”라고 질문을 하니 E가 “풍이 와 그렇습니더”라고 대답하자 G가 “나는 일본에서 11살 많은 의사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남편이 중풍이 와서 내가 역수로 고생했습니더”라고 가족사를 자연스럽게 말하였다. G의 이야기를 듣던 D가 “나도 어릴 적에 일본에서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국에 엄마 친정으로 왔는데, 거기는 어디 있었습니까?”라고 공통의 관심사가 나오자 이야기를 이어갔다. G는 북한 김일성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도망가다가 산에서 구르는 바람에 그때 다리 병신이 되어서 여태껏 다리가 아프다고 하니 옆에 앉은 C가 G의 왼쪽 다리를 만져 주면서 “잘 왔습니더. 여기가 좋지요?”라고 웃으며 말하였다. 26회기 사계절 사진 중 김치와 라면 사진을 보자 D가 “아~ 참 맛있겠네. 침 넘어간다”라고 말하니 C가 “라면 잘 끓이는 법 가르쳐 주까요?”라며 동료의 의사를 물어보았다. E가 “별거 있나. 물에 라면 넣고 수프 넣어 끓이면 그 라면이 그 라면이지. 뭐, 계란을 넣으면 쪼매 더 맛이 있을라나?”라고 답하니 C가 “우리 영감이 라면을 좋아해서 영감한테 배웠는데 이 방법대로 하면 맛있어요. 그런데 그놈의 영감이 지금은 아파서 라면을 못 먹는다 아이가!”라며 자신의 남편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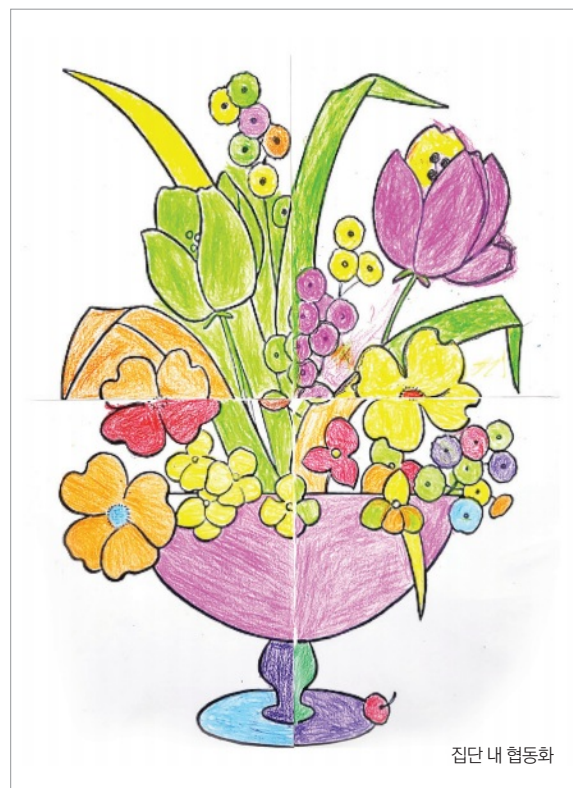
위와 같은 변화 외에도 서로에게 무반응이었던 참여자들은 9회기부터 서서히 인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동료들이나 치료사에게 자신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변화가 보였다. 또한 수동적으로 활동에 임하던 참

여자들은 회기가 진행될수록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하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R. Baumeister와 M. Leary(1995)에 의하면 ‘인간이 사회라는 틀 안에서 타인과 연계되고 그 안에 소속되고자 하는 소속욕구(Belongingness needs)는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라고 한다. 치매 노인 또한 예외는 아니다. 치매 노인이 건강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시도가 필요하다.

(이 글은 필자의 논문 중 일부를 발췌 및 수정하였음)

글_김소형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예술치료학과 교수



집단 내 협동화

즐거운 희곡 읽기II

쓸모없는 존재가 된 이 세상 수많은 월리를 위하여

— 아더 밀러 저, 강유나 역, 『세일즈맨의 죽음』(민음사, 2020)을 읽고

상상하면서 읽는 황홀한 희곡 읽기

아더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1949)은 [백희모](백편희곡읽기 모임)에서 열다섯 번째로 읽은 희곡이다. 벌써 3년 전이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 밤, 선풍기를 켜두고 네 시간에 걸쳐 줄에서 읽었다. 이열치열 독서피서법이라고나 할까. 긴 시간 집중해서 읽고 난 뒤,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면, 끈적한 얼굴 위로 불어오는 한 줄기 시원한 바람. 실로 희곡 읽기는 비루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문학적 세계 앞에 끌고 가는 황홀한 행위이다.

희곡 읽기는 상상하면서 읽는 행위이다. 해설과 지문을 통해 무대를 상상하는 것은 기본이고 인물의 신체적 특징, 버릇, 성격, 기질을 상상해야 한다. 심지어 막이 올라가기 전, 일어난 일까지도 미루어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대사를 칠 때도 무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는 대사인지, 서로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던지는 대사인지,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는 대사인지, 그 거리에 따른 말의 에너지를 상상해야 한다. 그 점에서 희곡 읽기는 다른 문학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독서행위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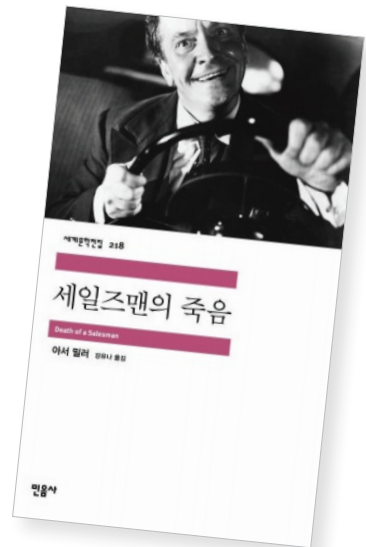
『세일즈맨의 죽음』의 경우를 보자. 『세일즈맨의 죽음』은 무려 세 페이지에 걸친 무대 해설로 시작한다. 먼저 독자는

해설을 통해서 아파트에 싸여 있는 월리 로만의 무너져 갈 듯한 집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공용공간인 부엌과 이층에 있는 부부와 아이들의 침실 그리고 별이 들지 않는 월리 로만의 뒷마당을 상상해야 한다. 벽으로 나누어져 있는 집의 공간들이 월리의 상상에서는 무너져서 그가 자유롭게 공간을 넘나드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월리가 빛을 내서 평생 힘들게 장만한 집, 허나 이제 아파트에 둘러싸여 씨앗을 심는 일조차 힘들어진 위태로운 집을 상상하는 데서, 『세일즈맨의 죽음』 읽기는 비로소 출발한다.

스타킹처럼 구멍 나버린, 월리 로만의 이야기

아더 밀러(1915-2005)는 유진 오닐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한 미국 현대 희곡을 계승한 작가로서 『세일즈맨의 죽음』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이 시대적 배경이지만, 지금 이곳에서도 여전히 일어나는 보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대량생산, 실직과 구직, 기계 시대, 인간소외, 내 집 마련과 할부금, 가족 해체 그리고 허상을 좇는 인간이 그렇다.

작품은 1막과 2막 그리고 레퀴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레퀴엠을 빼면 단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이다. 1막은 월



『세일즈맨의 죽음』 표지

리가 집으로 돌아온 저녁부터 잠이 들기 전까지이고, 2막은 다음 날 아침부터 그날 저녁 스스로 죽기까지이다. 연극은 하루라는 짧은 시간 동안 윌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그가 죽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윌리의 상상을 통해서 과거 잘 나가던 윌리와 화목했던 가족 그리고 우상이던 사촌형 뱀을 보여주면서 그의 꿈과 욕망 그리고 현실을 심리적으로 치밀하게 드러내고 있다.

윌리는 아내 린다 그리고 비프와 해피라는 두 아들을 둔 가장이다. 그는 특히 큰아들 비프에 대한 기대가 컸다. 비프는 고등학교 때까지 잘 나가던 미식축구 선수였다. 허나 수학 시험 낙제 후 웬일인지 계절학기 수업을 듣지 않고 자포자기 마음으로 대학에 입학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은 34살, 뚜렷한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다 이제 막 윌리의 집에 찾아온 것이다.

평소 윌리는 아이들에게 사내는 '강건하고 인상이 좋고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아마 그것은 평생 세일즈맨으로 살아온 윌리의 체험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그는 비프가 어린 시절부터 남의 물건을 집에 가져왔을 때, 야단치지 않았다. 연습실에서 공을 가져와도, 집을 지을 때 근처에서 다른 사람의 목재를 가져와도 오히려 답례하고 용

통성 있다고 자랑스러워했다. 비프의 도벽은 어른이 되어서까지 계속된다. 비프가 집을 떠나 수개월 소식조차 절연된 것도 알고 보면 그가 양복을 훔치는 바람에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의 도벽을 꾸중하지 않고 사내다움으로 생각한 윌리는 분명 잘못된 교육을 한 것이다.

비프도 상처가 있는 인물이다. 낙제를 하고 계절학기 수업을 들으면 구제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업을 듣지 않고 자포자기한다. 윌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가 자신의 외도를 안 비프가 반항심에서 한 일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다. 비프가 린다에게 특별히 연민을 느끼는 이유도 아버지 외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엄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집에 들어온 비프는 구멍 난 스타킹을 입고 있는 린다의 흰 머리카락을 보며 마음 아파한다. 비프는 아니다. 린다가 제대로 신지 못하던 스타킹을 윌리가 다른 여자에게 한 통씩 선물로 준 것을.

린다에게 가장 미안한 마음을 느껴야 할 윌리지만 린다를 대하는 태도는 고압적이고 일방적이다. 윌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린다인데도 말이다. 특히 린다가 구멍 난 스타킹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 윌리는 참을 수 없이 화를 낸다. 젊은 시절 자신이 했던 외도, 비프에게 들



커버린 현장, 그 일로 구멍이 나 버린 부자 관계가 나일론처럼 질리게 따라붙는 것에 대한 불안함 때문인지도 모른다.

월리는 과거에 산다. 자신이 잘 나가던 전성기가 그립고, ‘빛과 가족애’로 충만했던 과거가 그립다. 이제 그 시기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의 존재감은 빛을 잃어버리고 그는 ‘빛과 흔들리는 가족’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쓸모없는 ‘늙은 개’가 된 월리 로만의 이야기

월리는 세일즈맨으로서도 위기에 처해 있다. 그는 64살, 환갑이 넘는 나이이지만 현역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노동은 인정받지 못하고 그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다. 1100킬로가 넘는 거리를 자동차로 달려가지만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고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 큰 가방에 들고 간 팸플릿은 꺼내보지도 못하고 다시 그 길을 돌아와야 하는 그의 현실을 생각해 보라. 세일즈맨 월리 로만은 이제 인기가 없고 시들하다. 세상이 바뀌면서 발생한 직업적 위기이면서 동시에 늙어가면서 오는 이중적 위기이기도 하다. 그에게 나이는 연륜이 되지 못하고 추한 것, 열등한 것이 되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지만, 그는 이제 늙은 개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연극의 첫 장면은 극의 첫인상을 넘어서서 연극의 주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장치이다. 『세일즈맨의 죽음』 첫 장면은 그 점에서 중요하다. 극은 월리의 등장에서 시작된다. 월리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보자. 샘플이 든 큰 가방 두 개, 점잖은 옷차림, 지친 기색, 한숨, 아픈 손바닥 그리고 흘러나오는 신음. 현재 월리의 상황을 너무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는 겨우 집에 도착했다. 그가 집으로 오는 길은 마치 우주에서 떠돌다 간신히 집으로 돌아오는 듯 힘들었을 것이다. 집에 도착한 그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유령처럼 혼자 중얼거린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비프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경악하지만, 월리의 혼잣말은 스스로를 정녕 유령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안간힘이기도 하다.

그는 한때 잘 나가던 인물이었으나 세상이 바뀌었다.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세일즈맨이 필요했지만, 경제가 활성화되는 동시에 몰락하는 역설적 상황 속에서 세일즈맨은 곧 위기에 처한다. 그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고 5주 동안 커미션만 받고 있다. 자동차 수리비, 냉장고 할부금, 밀린 보험금 그리고 주택융자할부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빚을 다 갚지 못했으니 온전히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집안에서 온수 파이프도 고장 나 고쳐야 하고 샤워기는 줄줄 샌

찰리와 그리고 남은 세 식구. 평생 인맥을 강조하던 세일즈맨 윌리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은, 남은 가족과 친구 한 명이 전부이다.
주택할부금을 비로소 다 갚았지만, 윌리의 집에는 윌리가 없다.
세상 수많은 윌리를 위로하고 싶다면 추천하고 싶은 교과서 같은 희곡이다.

다. 자동차도, 냉장고도 고장이 났거나 나기 일보 직전이다. 윌리의 말처럼 '할부가 끝나면 물건도 생명이 끝나도록' 유효기간을 정해둔 것 같다. 고장 나기 전에 내 것으로 가져보는 게 그의 바람이다. 그는 절실하게 돈이 필요하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말이다.

그런데 세일즈맨으로서 전성기에 있을 때조차, 윌리가 느끼는 '외로움'은 낯설면서도 의미심장하다. 윌리는 출장길에서 만나는 여자에게 말한다. "난 너무 외롭거든. 특히 일이 잘 안 풀리고 말할 상대도 하나 없을 때면 말이오. 다시는 하나도 팔지 못하고 식구들 생계를 책임지지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지." 늘 가족들에게 당당하고 자신감을 보여주던 윌리는 실은, '외롭다' 가슴 속 깊이 있는 숨겨둔 자신의 나약한 목소리를, 그는 가족 대신 출장길에서 만나는 여자, 윌리에게 사랑 대신 나일론 스타킹만을 원하는 껍데기 같은 여자에게 말한다. 나는 너무 외롭다고.

그의 외로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마르크스는 노동자는 노동 바깥에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과 함께 있다고 느끼며 노동 속에서는 자기가 자신을 떠나 있다고 느낀다고 말한 바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는 항상 자신의 능력보다 많은 노력을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다. 자본가들은 노동자가 더 열심히 노동하도록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고안하는데, '경쟁'도 그중 하나다. 윌리는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쟁 구도 속에 내몰린 이상, 달리는 러닝 머신 위에 올라탄 사람처럼 끝없이 달려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윌리의 '외로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상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경쟁에 내몰린 인간으로서 느껴야 하는 처절한 외로움이다. 러닝 머신이 멈추는 순간, 쓸모없는 인간이 되기에 끝없이 달려야 하는 인간 노동자로서 느끼는 절박한 정서가 '외로움'이었던 것이다.

그가 러닝 머신에서 내려오는 방법은 안타깝게도 '죽음'이었다. 영원한 안식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돈으로 교환시켜 가족들을 돕고자 한 죽음이다. 레퀴엠에서는 윌리의 장례식을 보여준다. 찰리와 그리고 남은 세 식구. 평생 인맥을 강조하던 세일즈맨 윌리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은, 남은 가족과 친구 한 명이 전부이다. 주택할부금을 비로소 다 갚았지만, 윌리의 집에는 윌리가 없다. 세상 수많은 윌리를 위로하고 싶다면 추천하고 싶은 교과서 같은 희곡이다.

글_김영희 경성대 미래인재교양학부 교수, 연극평론가

즐거운 희곡 읽기Ⅲ는 6월호에 이어집니다.

인간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

영화 <플랜 75>

“넘쳐나는 노인이 나라 재정을 압박하고 그 피해는 전부 청년이 받는다. 노인들도 더는 사회에 폐 끼치지 싫을 것이다. 옛날부터 우리 일본인은 국가를 위해 죽는 걸 금지로 여겨왔다. 나의 이 용기있는 행동을 계기로 문제를 진솔하게 논의하고 이 나라의 미래가 밝아 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 청년이 요양 시설에 들어가 여러 노인을 총으로 살해하고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일본의 노령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애국적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실재가 아니라 일본 영화 <플랜 75> 처음에 나오는 사건이다. 지난달 영화 홍보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하야카와 치에 감독은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영화 속 노인 살해 사건은 2016년 일본 가나가와 현에서 20대 청년이 장애인 시설에 침입해 19명을 살해한 사건에서 착상을 얻었다고 밝혔다.

평균 수명이 늘어가면서 사회에서 나이든 사람의 비율이 늘고 있다. 국제연합^{UN}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Super-aging society}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2000년에 노령 인구 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2018년에는 14.3%로 고령 사회로 들어왔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화의 무대인 일본은 작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1억 2500만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29.1%이다. 국제연합은 일본의 인구가 전 세계 최고령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에 따르면, 오는 2040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34.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노령화를 겪는 사회는 서로 다른 연령 집단 사이에 의견 불일치와 긴장을 일으킨다. 인구가 노령화되면 될수록, 공적 사적 자원이 건강관리, 연금, 노인 서비스 분야로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자원 할당 때문에 청년 세대에게 직접 이득이 되는 교육, 직업 창출, 기술 개발 등에 투자가 줄어들어 젊은 사람들은 불공정의 분노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은퇴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연금과 사회복지 시스템에 기여하는 청년세대의 부담이 증가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노령 인구를 부양하는 재정적 부담이 불만스럽다. 세대 갈등은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된다.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들은 선거에서 점점 더 영향력을 확대하여 노령자에게 유익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투표하는데 그런 정책은 젊은 세대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세대 갈등을 포함한 노령 사회의 문제가 영화의 배경이다. 노령 인구의 증가가 일으키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놀라운 프로그램을 발표한다. 영화 속 가상의 제도 '플랜 75'는 일본 정부가 장려하고 시행하는 안락사 프로젝트이다. 75세가 넘는 노인이 '플랜 75'를 신청하면 그들이 국가 사회의 부담을 줄이고,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며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것이다. 신청자에게 정부는 10만 엔의 준비금을 지급하고, 국가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며, 콜 센터를 운영하여 직원이 신청자와 상담하여 죽음을 앞둔 사람의 불안을 덜어주며, 화장과 매장도 무료로 국가가 처리한다.

70대 후반의 미치^{Michi}는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여러 군데에서 직업을 구해보았지만 어떤 곳도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미치는 자신이 이 사회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는 데 절망하며 차라리 죽은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며 플랜 75를 신청한다. 또 한 사람의 신청자 유키오^{Yukio}는 토목에 종사하여 전국을 다니며 다리를 놓고 터널을 뚫었다. 그 역시 나이가 들어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자 무가치한 존재라는 점을 느끼며 안락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 영화는 노령 사회와 안락사에 대한 토론을 자극하며, 인간의 가치에 대한 철학적 물음을 던진다. 인간은 왜 살 가치가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 또는 가치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하나는 서양적 사고이며 다른 하나는 동양적 사고이다. 서양의 전통 철학적 시각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내재



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나이가 많은 적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사회에 기여를 하든 않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 내재적 가치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 칸트는 자유라고 불렀다. 모든 사람은 사유하는 능력이나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자유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이것은 오로지 인간만이 구비하고 있다. 유대교-기독교 전통에서 보면, 인간은 신의 형상을 본떠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신처럼 존엄한 것이다. 근대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에 대한 사고의 변화가 일어난다. 성취와 성공이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척도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 부의 축적이 매우 높이 평가되는 자본주의 경제 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엄한 개체라는 인식은 흔들리지 않았다.

인간의 가치에 대해 동양은 서양의 개체주의적 관점과 달리 집단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가정, 사회, 국가와 개인 중 어느 쪽이 우선인가? 서양에서는 개인이 우선이다. 사회계약설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조직

된 실체이다. 그래서 개인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반면 동양에서는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이다. 개인은 가정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하지, 집단과 떨어진 고립적 실체가 아니다. 동아시아의 유가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는 가정이나 사회 내에서 개인의 역할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조선의 여자들은 아들을 낳지 못하면, 가문의 존속을 위해 남편이 새로운 여자를 맞이하도록 허용했다. 하야카와 감독이 지적하듯이 일본의 카미카제 특공대는 태평양 전쟁 당시 연합군 함대에 비행기 자폭 테러를 감행했다. 가문과 국가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집단에 대한 개인의 기여이다.

‘플랜 75’의 기저에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집단적 관점이 깔려 있다. 정부와 청년 세대들은 노인들이 더 이상 국가에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귀찮아한다. 안락사를 신청한 노인들 역시 이런 평가를 따르고 있다. 노인을 살해한 청년, ‘플랜 75’를 만든 정부, 신청자 미치와 유



키오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견해가 동일한 것이다.

고려장高麗葬은 고려시대에 노령의 부모를 버리던 풍습에 관한 설화이다. 우바스테야마[姥捨て山]는 ‘할머니를 갖다 버리는 산’이란 뜻인데, 일본의 고려장 이야기이다. 영화의 ‘플랜 75’ 프로그램은 사실상 국가가 후원하는 고려장이다. ‘플랜 75’의 홍보 영상에 등장하는 “태어날 때는 선택하지 못했지만 죽음은 자발적으로 선택하자”는 말이 품위있게 들린다. 인간에게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런데 미치는 자발적으로 안락사를 선택한 것일까? 아니다. 그녀의 결정에는 불가피한 강요의 측면이 크다. 미치는 무료 급식소를 이용해야 할 정도로 가난했으며, 친구도 가족도 하나 없이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사회도 미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요구를 암암리에 하고 있었다. 개인의 자선에 대한 관념은 자선에 대한 타인의 관념에 크게 의존한다. 사회가 나를 하찮게 보면 나도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이다.

일본처럼 한국에도 노인 혐오적 태도가 널리 퍼져 있다. 인간의 가치를 집단에 대한 기여에 두는 사고에서는 노인 차별주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10여 년 전 필자가 연구원으로 장기간 미국의 대학을 방문하였을 때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었다. 그에게 가장 인상깊은 점은 미국의 노인들이었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까만 점퍼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할머니들이 긴 머리에 화장을 하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것이 아들에게 멋있게 보였다. 미국의 노인들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여전히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의 마지막에 사상적 반전이 일어난다. 안락사 장비의 고장으로 미치는 죽지 않았다. 마을로 돌아와, 석양 무렵 미치는 도로의 철제 난간을 잡고 마을을 내려다보며 노래를 흥얼거린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일 다시 만나요. 황혼에 물든 붉은 석양 서쪽으로 질 무렵에...” 내일까지 살면 다시 내일이 있다. 죽음을 경험한 후 미치는 인간 존재는 그 자체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글_배학수 경성대학교 철학과 교수

부산국악협회 제63차 정기총회, 제27대 회장 강명옥 당선

3. 9.(토)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 4층 회의실



부산국악협회가 제63차 정기총회 및 제27대 부산국악협회 회장 선출 선거를 치렀다. 성원보고, 국민익례 등에 이어 먼저 2023년 주요업무 및 사업실적 보고, 감사보고, 2023년 결산 보고 및 결산 승인 등이 진행되며 한 해 동안 부산국악협회의 활동과 성과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으로, 향후 부산국악협회를 이끌

어 갈 제27대 회장 선출 선거를 개최했다. 선관위원장 인사에 이어 입후보자가 공약을 발표했고 투표 시작, 개표까지 이어졌다. 선거 결과 가야금병창 분과의 강명옥 후보가 제27대 부산국악협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임기는 3월 9일부터 4년간이다.

2024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의안부터는 제27대 회장이 진행했다. 4월 제38회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8월 전국국악경연대회 제31회 부산국악대전, 10월 제62회 부산예술제 전통음악한마당, 11월과 12월 부산국악축제Ⅰ,Ⅱ 등의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이 모두 승인됐고 기타토의에 이어 정기총회를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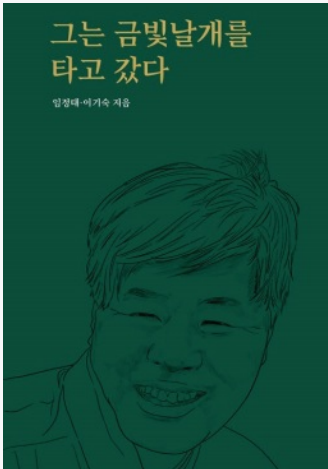
부산영화인협회 제59차 정기총회, 서영조 회장 연임

3. 16.(토) 오후 5시 부산예술회관 4층 회의실



부산영화인협회(회장 서영조)의 2024년 제59차 정기총회가 3월 16일 오후 5시, 부산예술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성원보고와 개회선언에 이어 서영조 회장은 보고사항으로 2023년 협회운영 결과보고, 2023년 사업결과를 보고했다. 부산영화인협회는 지난해 매월 첫째 주 토요일 회원을 대상으로 한 대본, 영화감상, 연기연습, 콘티북 작성 등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제37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청소년, 영상으로 소통하다', 제61회 부산예술제 '2023부산영화제'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청소년, 영상으로 소통하다'에는 시나리오 88편, 동영상 7편이 출품되어 총 24편의 수상작이 가려졌으며, 2023부산영화제에서는 단편영화 <거기, 모든이들>을 제작 상영했다. 심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호 '2023년 수지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제2호 '2024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제3호 '2024년 수지예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이 상정되어 모두 승인받았다. 이날 총회에서는 앞으로 4년간 부산영화인협회를 이끌어갈 새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원선출이 있었는데, 서영조 현 회장이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연임되었으며, 부지회장에 박성호, 이정림이 각각 선출되었다. 또 감독분과위원장에 김현미, 배우분과위원장에 서재하, 시나리오분과위원장에 정다운, 제작기술분과위원장에 안현조가 각각 선출되었다. 기타토의에서는 협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으며, 신입회원 인사를 끝으로 제59차 정기총회는 마무리되었다.



시네바움
4월 강좌안내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시네바움

4월 시네바움 '언노운 시네마: 보이지 않는 영화'는 영화 로케이션 매니저와 감독으로 부산에서 재회한 선화와 도영의 이야기를 다룬 김민근 감독의 <영화의 거리>에 대해 평론가 김영광과 함께 얘기를 나눈다. 둘째 주에는 예술철학자 이성훈이 '도나우강 자전거 여행'을 주제로, 셋째 주에는 정병언 부산대 영어영문학과 교수가 '롤랑바르트의 사진으로 만나는 세상'을 주제로, 넷째 주에는 박기철 경성대 교수의 '머릿속 전시회, 서울 부산 도 보여행기'를 주제로, 다섯째 주에는 이기숙 신라대 명예교수이자 한국다인매터스 대표의 '엔딩 노트, 그는 금빛날개를 타고 갔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중구 백산길 우동불에서는 '중국어로 낭독하는 당시 삼백수가 둘째·넷째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각각 열린다.

문의 010-2774-3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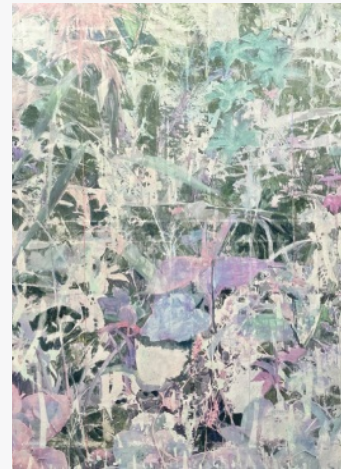


박선희
초대 판화전

4. 2.(화) ~ 20.(토)
르네시떼 갤러리 르네관 4층

봄이면 지천에서 볼 수 있는 심지어 보도블럭 틈새로 얼굴을 내밀어 삭막한 도심에 생기를 불어넣는 민들레. 부산미술협회, 부산판화가협회, 부산여류전 회원으로 활동하는 박선희 작가의 판화전에 민들레가 지천으로 피었다. 노란 민들레의 꽃말은 '행복' '감사하는 마음'이다. 꽃말처럼 작가는 이른 봄소식과 희소식을 고대하며 지난 겨울 내 판각했던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노트에서 작가는 '시간의 강은 삶을 허용하고 삶은 그 시간을 거슬러 오르며 이야기를 낳는다. 오래된 미래라는 은유적 시간의 표현은 오래된 것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는 의미'라면서, '우리가 예술이라는 형식 속에서 꿈꾸며 찾는 하나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라고 소개한다.

문의 010-7738-0857



배남주
가변기억

~ 4. 5.(금)
맥화랑

작가는 작업 초기부터 평면 페인팅 작업을 통해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개념에 주목하며 이항대립적 상황을 부정하는 '중간'의 성질인 '불확정성'을 시각화한다. 행복과 불행, 죽음과 탄생, 안과 밖, 빛과 어둠, 현실과 이상의 중간과 같이 명확하게 정의될 수 없는 불명확한 그 '사이 공간'에 매료된 작가는 '중간'의 개념을 '대안적 이상 세계'로 설정하고 불확실한 세계를 회화적으로 풀어낸다. 이번 전시 '가변기억'은 우리가 인지하는 세계 역시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경험이 우리의 기억을 재가공하고 변형시키며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작가와 작품, 작품과 관람자 사이의 '불확정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와 해석을 확장해 볼 수 있다.

문의 051)722-2201



김재춘의 민화세계

~ 4. 7.(일)

통도사성보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김재춘은 파인 송규태 선생에게 사사받고 스승이 지켜온 전통의 맥을 계승하면서 부산대학교 민화아카데미 지도교수, 경주대 대학원 문화재학과 특임교수를 역임하고 12회에 이르는 민화전을 개최한 바 있다. 작가는 전시에 앞서 '이번 전시는 내면세계로 추구되는 창조성 있는 현대 회화기법의 민화'를 선보인다고 하면서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를 연결한 소통의 장이 되어 전통과 현대가 샘처럼 다시 태어나는 훌륭한 우리 민화가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대표적인 '책과 갖가지 물품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진 책거리' '벽사와 길상의 상징인 호랑이와 용' '미인도' '백학도' 등 작가 특유의 예술적 감각이 반영된 6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55)384-0010



김한나 : 본인인증의 달인

~ 4. 7.(일)

오케이앤피 부산

대학교 재학시절 '토끼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토끼를 그리고 있는 김한나의 개인전이 오케이앤피에서 열리고 있다. 그의 작품에는 작가의 이름을 딴 '한나'라는 소녀와 흰토끼가 함께 등장하는데, 이들은 서로 다양한 감정을 주고 받으며 소중한 순간을 공유한다. 작가에게 토끼는 '절친'이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에 작가는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여러 시점으로 이루어진 한나와 토끼 이야기를 기록한다. 한번도 휴대 전화를 가져본 적 없는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한나와 토끼가 휴대전화 없이 본인인증을 하는 과정을 담았다. '발에 땀 지문 인식' 등으로 보여주는 '본인다움'은 현대인들이 속도와 편리를 얻는 대가로 잊고 살아가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문의 051)744-6253



풍류II, 꽃으로 피어나다

4. 14.(일) 오후 3시

녹녹원

월정명무용단과 갤러리에동이 녹녹원에서 '풍류II, 꽃으로 피어나다'를 연다. 태평무 이수자인 김혜경의 사회로 우리 전통춤과 가야금·대금 합주 등의 공연을 선보인다. 경쾌한 춤사위와 가벼우면서도 절도있게 몰아치는 발디딤새가 멋스러운 <태평무>를 장래훈과 강미선이, 행복을 기원하는 <도살풀이춤>은 김연희가, 다양한 동작과 가락의 섬세한 맛이 돋보이는 <강선영류 장구춤>은 이승희가, 영남지방 춤의 질박한 멋스러움이 살아있는 <권명화류 소고춤>은 김경미가, 동래지역 토속춤으로 격조 높은 춤사위를 보여주는 <동래학춤>은 이광호 이나현 배철희 오치훈 박윤선이 춘다. 여기에 최경철 안창섭이 가야금과 대금 합주로 <신민요 연곡>과 <황금산의 백도라지>를 들려준다.

문의 051)781-5337



우징; 나만의 풍경

~ 4. 15.(금)
케이브이아트

우징 작가가 직접 체험한 풍경을 자신만의 어법으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드로잉 작품전이다. 누군가에게 철은 차갑고 단단하기만 한 물질로 느껴질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부드럽고 따뜻하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재료이기도 하다. 우징은 철을 통해 과거의 풍경을 되짚어 보는 수행의 시간을 갖는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풍경은 보는 이의 시선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직접 경험한 풍경을 기억속에서 가져와 재해석해 보여준다. 강렬한 감정과 표현이 묻어나 그의 예술적 진심을 느껴볼 수도 있고 새로운 시선을 유도하는 작품은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불러 일으킨다.

문의 0507-1340-6247



소만, 어딘가의 창

~ 4. 16.(토)
KT&G상상마당 부산

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했지만 졸업 후 가장 하고 싶었던 '그리기'에 몰두하며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하고 있다. 그간 싱어송라이터 안예은 EP앨범 커버, 세븐틴 리릭 비디오 배경 일러스트 및 도서 삽화 작업으로 주목받았다. '어딘가의 창'은 가느다란 선과 작은 점을 엮은 흑백의 이미지와 검정의 담담함을 유지하며 마치 반짝이는 빛을 흩뿌린 듯한 그림이다. 작가가 채택한 작화 방식인 펜화는 데생의 일종으로 오래된 회화 기법 중 하나인데 선의 조밀과 농담의 변화를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반면, 유려한 선을 사용하기까지 끈질긴 훈련과 인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작가는 펜이라는 한계를 넘어 수많은 점선의 집적과 세밀한 묘사로 높은 완성을 보여준다.

문의 070-8893-0892



국제신문교향악단 창단연주회

4. 17.(수) 오후 7시 30분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지역 최초의 신문사 오케스트라인 [국제신문교향악단(KSO)]이 올봄 창단한다. KSO는 부산 지역의 우수한 오케스트라단원들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로 올해 다양한 형태의 연주로 음악팬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첫 연주는 4월 17일, 영화의전당에서 '봄의 소리'를 부제로 열린다. KSO를 이끌 오충근 감독은 이번 창단 연주에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박쥐」 서곡, 보로딘의 「이고르 공」 중 〈폴로베츠인의 춤〉 등을 들려준다. 이날 연주에는 얼굴과 목소리도 연주만큼 친숙한 첼리스트 송영훈이 오펜바흐 「자클린의 눈물」과 브루흐의 「신의 날」을, 부산 출신의 소프라노 김소율이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와 레하르의 「주디타」 중 〈내 입술, 그 입맞춤은 뜨겁고〉를 협연할 예정이다.

문의 051)500-5222



부산발레시어터 백조의 호수

4. 18.(목) 오후 7시 30분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부산을 기반으로 창작 공연부터 클래식 전막 발레 공연까지 폭넓은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발레시어터가 <백조의 호수>를 무대에 올린다. 클래식 발레의 대표작 <백조의 호수> 주요 장면을 선별해 재구성한 작품으로, 악마 로트바르트의 시점에서 해설을 진행해 작품의 접근을 새롭게 하며, 환상적인 마술쇼까지 더해져 발레공연을 처음 접하는 관객들도 쉽게 감상할 수 있다. 성인식을 맞은 지그프리트 왕자가 악마 로트바르트의 마법에 의해 백조가 된 오데트 공주를 만나 사랑을 약속하는 1막을 시작으로 2막까지 이야기는 이어진다. 지그프리트 역에 김태석, 오데트 공주 역에 김유진이 무대에 서고 임재현이 악마 로트바르트로 해설한다.

문의 051)513-7779



가야금, 줄 위에서 춤추다

4. 19.(금) 오전 11시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통악기인 가야금의 이야기를 다양한 음악들로 구성한 공연이다. 12줄의 범금과 산조가야금에서부터 25현 개량가야금까지, 궁중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가야금 줄 위에서 춤을 추듯 음악을 풀어가면서 다양하고 폭넓은 음색으로 가야금 줄 위의 움직임을 느껴보고 관객들이 가야금에 조금 더 친숙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가야금 수석으로 활동하는 이선희의 연주에 진선화(해금) 이창희(편곡 피아노) 김동현(대금) 변자영(가야금)이 함께한다. 「천년만세 중 계면가락도드리, 양청도드리」, 「강태홍류 가야금 짚은산조」 「25현 가야금 독주곡 '아리랑」 「대금독주 '소나무」 퓨전국악 「우리 악기로 대중음악을 노래하다」 등을 들려준다.

문의 051)220-5811



See through 2부

~ 4. 27.(토)
리나갤러리 부산

2007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개관해 신진 작가 및 역량있는 작가를 소개해 온 리나갤러리는 2023년 12월 22일 부산 지점을 개관했다. 1~3부로 나뉘 총 9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See Through'의 2부 전시에는 강지, 곽철, 구성연을 비롯해 30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그중 이재효 작가는 나무와 못 등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를 낯설게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자연을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선보인다. 김병주 작가는 '드러나지 않음'이라는 속성을 가진 건물에 주목해 작업한다. 갤러리 건물 위로 박찬걸 작가가 제작한 높이 5m의 「비너스의 탄생」 조각상이 설치되는데 이는 보티첼리 회화의 비너스 이미지를 차용해 만들어진 작품이다.

문의 051)711-0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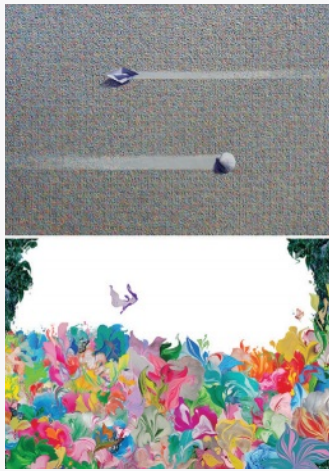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56회 정기연주회

4. 28.(일) 오후 7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미래지향적 음악으로 행복의 하모니를 관객에게 전하고 있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의 56회 정기연주회는 BSO·Bruckner·Bruch인 '클래식3B'로 요약된다. 창단멤버와 2세대, 3세대 연주자들이 한 무대에서 음악으로 세대를 아우르며 대편성의 오케스트라로 부산의 실연 무대에 올리기 어려운 곡들을 수준있는 연주로 들려주는 BSO, 이번 정기연주회의 프로그램인 브루흐Bruch와 브루크너Bruckner의 곡이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은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이 협연으로 풍부한 서정과 함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가 주고받는 걱정까지 감상할 수 있다. 이어 「로맨틱」이라는 부제가 붙은 브루크너의 「교향곡 4번」으로 웅장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주할 예정이다.

문의 051)621-4577



Blossom전

4. 16.(화) ~ 5. 5.(일)
갤러리 마레

갤러리 마레의 'Blossom전'은 안봉균, 에밀리영 2인전이다. 안봉균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업방식과 기술로써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의 관계라는 예술의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 작가는 바탕 화면 위에 글자를 기입하고 텍스트를 각인하여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문명, 그 기억의 또 다른 형상을 작품의 표면 위로 드러나게 한다. 개별적인 추상 패턴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하는 에밀리영의 작품은 수많은 기하학적 패턴이 모여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자연의 형태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각각의 추상 이미지들은 하나의 커다란 구상 이미지로 변환돼 보여진다. 작품 제작에 작가의 개입은 최소화하였는데 자연 그대로의 우연한 기법을 사용하여 몽환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형상으로 관람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문의 051)757-1114



극단 에저또, 검정고무신

4. 19.(일) ~ 5. 5.(일)
평일 20시, 토 15시/18시, 일 16시
에저또소극장

극단 에저또의 <검정고무신>이 배우들의 열정과 더욱 탄탄해진 스토리로 관객과의 만남을 기다린다.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을 담은 <검정고무신>은 670년대를 보낸 우리들의 이야기다. 부모의 부재로 가장 노릇을 하는 만발 진실이의 집은 아침부터 분주하다. 철없는 둘째 야동이, 구두닦이로 누나를 돕는 착한 셋째 갑동이, 먹어도 먹어도 늘 허기진 개구쟁이 넷째 양동이, 일찍 철이 든 다섯째 봉실이,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업동이까지. 조용할 일 없는 진실이의 집이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사랑으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삭막한 뉴스로 채워지는 요즘,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순수했던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작품이다. 김지연 작, 최재민 연출, 김문홍 각색.

문의 051)852-9161



‘A COLORFUL LIFE - 다채로운 삶’ 김우진 展

~ 5. 31.(금)
소울아트스페이스

김우진 작가의 중대형 작품부터 오브제 평면, 소품, 영상작업 등 35점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소울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다. 단단한 스테인리스 조각에 컬러를 입혀 불규칙적으로 융접해 완성한 작품은 사슴, 말, 개, 황소, 토끼 등의 형태다. 색보다는 형태를 중시하는 일반 조각과 달리 그의 조각은 화려한 색이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다. 작가 본인이 “사물을 볼 때 강렬한 색을 먼저 인식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무엇인지 형태를 인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작가의 동물에 대한 애정, 빨강-파랑-초록의 색이 상징하는 열정과 사랑, 평화와 관용, 생명성이 작품에 담겨 트렌디하면서 독창적인 작품 경험을 선사한다. 4월 13일까지는 관람 시 사전 예약 필수.

문의 051)731-5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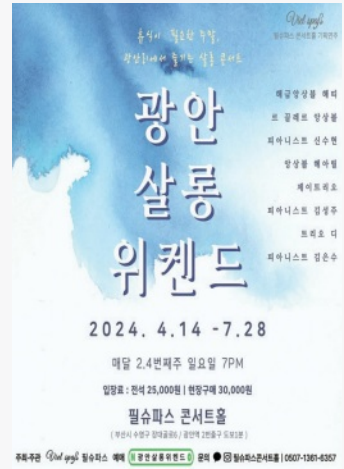


돌로레스 마라의 시간 : 블루

~ 6. 7.(금)
고은사진미술관

국내 최초로 여는 프랑스 사진가 돌로레스 마라의 개인전이다. 전시제목은 해가 뜨기 전 혹은 지기 전의 푸르스름한 하늘의 상태를 이르는 프랑스어로 생업을 이어가며 새벽과 저녁에 작업했던 마라의 상황까지 아우르는 중의적 표현이다. 작가는 40여 년간 독창적인 방식으로 사진작업을 해왔다. 사람들이 잠들거나 꿈꾸는 시간대에 주로 작업하는 마라는 평범한 일상이 경이로워지는 순간을 포착하여 흐릿하고 거친 입자와 신비로운 컬러를 보여준다. 회화적인 컬러와 톤에서 드러나는 외로움과 섬세한 감수성은 마라 작업의 키워드이다. 이번 전시에는 초기작부터 2022년까지 대표작 60여 점을 소개하며, 작품 이해를 돕기 위해 작가의 일상과 작업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도 상영한다.

문의 051)745-0055



광안살롱위켄드

4. 14.(일) ~ 7. 28.(일) 오후 7시
필슈파스 콘서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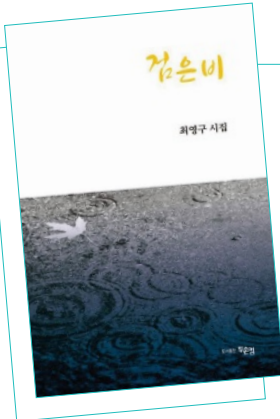
광안리에 위치한 민간 소극장 필슈파스의 대표적인 기획공연으로 다양한 장르의 실력있는 아티스트들과 관객이 만나 소통하는 공연이다. 올해는 해금양상블 해피의 ‘해금이랑 친해지기’, 르 끌레르 양상블의 ‘Romance; 낭만’, 피아니스트 신수현의 ‘신수현 피아노 독주회’, 양상블 헤아릴의 ‘그대를, 헤아리다’, 제이트리오의 ‘제2회 정기연주회-위대한 예술가를 추억하며’, 피아니스트 김성주의 ‘Seongju Noah Kim Piano Recital’, Trio D의 ‘Trio D: Dear, Summer’, 피아니스트 김은수의 ‘해설과 함께하는 피아니스트 김은수 독주회’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필슈파스는 독일어로 ‘즐거자’라는 뜻.

문의 0507-1361-6357



멀리 있어도 보고 싶은 신진식 / 도서출판 애플북

시인의 이야기를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 듯 ‘쓸데없는 수사를 붙여 미사여구를 넣어놓지 않고 ‘투박하면서도 소박하고, 직설적이면서도 순정적인 시’(정훈 문학평론가)다. 시인의 시선은 ‘아직도/한스럽게 겪었던 전쟁이야기들이/보도 불력의 모서리에 매달’(『깡통시장』)린 강동 시장에만 있지 않고, ‘어릴적 뛰놀던 고향의 뒷동산/피라미 펄떡이는 냇가/플라타나스 싱그러운 운동장’(『그냥 그렇게』)과 ‘더러는 빠가 되고/더러는 살점이 되어/바다 생활과 전혀 다른/인간 세상’(『고등어가 보는 세상』)을 보는 고등어에도 있다. 천연기념물 52고래를 시로 읊으며 우리나라 교육에 일침을 놓기도 하지만 ‘그래두 말여/우리 동네는 좋은거여/돈은 읊서두 말여/이웃끼리 씌 안하구/사이 조쿠/에덜 착하 잔여’(『어디! 세상 시끄러워 살것서』)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검은비 최영구 / 도서출판 두손컴

시를 읽으면서 정답을 찾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다. 한번에 이해가 되는 시는 같은 사물을 보고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나만의 상상력으로 시인의 의도가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 보면 된다. ‘부억 싱크대 문을 열다/사발 하나를 깬다/사는 게 늘 사건이요 자연이다//네게 손을 내민다/필연이요 우연이요 운명 같은 것//울분 희열 배신 화해 분노 비애/끝이거나 시작이거나/우연이거나 필연이거나/순간을 넘는 일 살아가는 일’(『필연』) 시인은 ‘창조적 상상력으로 사유의 깊이를 확장해 대상을 인식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대상을 새롭게 이미지로 형상화할 수 있어야 하는 작업’이 시 쓰기라고 설명하며 싱크대에서 떨어진 사발에서 우연과 필연을 떠올렸다.



삶에 대해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 정은영 / 가담

표제작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이하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을 비롯해 「마탁」 「행복한 눈물」 「풀잎」 등 8편의 단편을 수록했다.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은 엄마와 사별 후 아버지가 가사도우미로 들인 박여사의 마지막을 정리하게 된 주인공 수경의 이야기다. 제4회 금샘문학상(소설부문)을 수상한 「마탁」에선 “빌어먹을…… 바로 이게 그 알 곳은 거”를 보는 홀로 된 아버지를 돌보는 막내딸의 연인과 애증의 문제를 다뤘다. 「행복한 눈물」은 어릴 적 기억으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유원경이 친구 카페에서 만난 산사람 김성주를 통해 오래도록 자신을 짓눌렀던 아픔을 극복하는 과정을 들려준다. 『문학과 의식』에 수필로, 전남도민일보 신춘문예에 소설로 등단한 작가는 『인연이라는 이름』 등 4편의 수필집과 『마탁』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등 2권의 소설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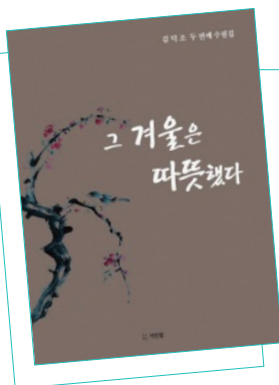
파란꽃을 삼키다 최술 / 책퍼냄열린시

시인의 본명은 최옥희, 소나무를 좋아해 필명에 '술'자를 넣었다. 2018년 『부산시단』(제18호)으로 등단해 이번에 첫 시집을 냈다. '돈도 안된다는 시'를 쓰는 이유는 지구상 시인의 수만 큼이나 다양하겠지만, '위로와 치유'도 큰 몫을 차지할 것이다. 최술 시인의 작품에서도 가난했던 어린시절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현재의 모습이 투영된다. 손가락 걸고 약속했던 어린 동생이 눈에 밟혀 참아보다가 '배고픈 가방 속에서 갈수록 작아'(『옥수수 빵과 개떡, 총』)진 옥수수빵을 건네야 했던 어린시절, '빨간 구두 한 켤레가/아버지 밥반찬 몇 가지를 빼앗아'(『날은 구두』) 갇힌 첫 출근의 아린 기억마저 시로 승화해 노래하고 있다. 뒤돌아보며 멈추지 않고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채워'가며 앞으로도 곳곳하게 삶의 순간을 시로 엮어나갈 수 있길 바라본다.



나에게, 나의 물음 이형주 / 두손컴

시를 읽으며 독자는 시인의 일상을 그려보곤 한다. 세 번째 시집인 『나에게, 나의 물음』에서 왕할머니가 된 시어머니부터 손주까지 4대의 이야기와 따뜻하게 그려면서 세밀하게 관찰한 사물들, 그리고 여행에 이르기까지 시인의 삶을 유추해 본다. 바쁜 틈틈이 '쓰고 지우는 것의 반복을 통해 정'이 든 시 쓰기도 빼놓을 수 없다. '세월을 베어 누운 들판에 서서/침묵의 고요를 삼키는 노을을 보며/하루를 살다가는 소꿉놀이를 했을까'(『소꿉놀이』)라며 회상에 잠긴 시인은 '사자중대암 새벽길 오르는 계단마다' 나는 누구인가를 묻고, '부드러워지리라/찬기(氣)가 사라지면//사는 일도 살아 보며/살 만하듯이/부드럽게 사는 거/쉽지 않은 거 알지'(『사는 일이란』)이라며 깨달음을 전하기도 한다.



그 겨울은 따뜻했다 김덕조 / 도서출판 사인텔

어머니의 장롱 맨 아래 칸에 들어있던 낡고 오래된 두 권의 소설책과 빛바랜 구슬 백 안에 들어있던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남긴 편지를 읽었던 어린 소녀는 자라서 수필가가 되었다. '내 이름은 남자처럼 억양이 강하다...남자애들은 "떡쫄"라고 놀려댔다. 내 어깨를 치며 "찰떡"하고 도망가는 아이도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아이를 잡아 한 대 때리려고 뛰어들었던 기억이 난다.'(『좋은 이름』 중) 친구의 아버지는 '백조라 부르면 좋겠다' 했지만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우아하게 사느라 고달팠을 것'이라며 '요가하느라 몸을 비트는 행동을 하지 못할 것이고 허가 잘 돌아가지 않는 팝송을 부른다고 쉼 소리도 맘놓고 지를 수 없었'기에 아버지가 지어준 '자신을 알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좋은 이름'인 김덕조로 여전히 살고 있다.

부산예술회관은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연습실을 실비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예술회관은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순수한 열정과 참여로

대중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만나는 곳입니다.

문화적 향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연, 전시,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무한한 창작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 문화를 제공합니다.

부산예술회관 대관시설 면적

공연장 597.56㎡ (240석)

회의실 87.62㎡

3층 전시장 122.57㎡

4층 전시장 116.32㎡

4층 연습실 102.12㎡

2층 연습실 94.05㎡

1층 연습실 52.62㎡

지하주차장 약 60대 주차 가능

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

www.bsart.or.kr

대표전화 051) 631-1377

대관문의 051) 612-1376



2024년

2분기(4~6월)

예술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중

모집일정 및 수강기간

모집일정 수시모집 또는 분기별 모집
누구나 신청가능수강기간 2024년 1 - 12월 (3개월씩 모집)
(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

수강신청 및 문의

전화 및 방문접수
계좌번호 부산은행 310-01-001290-2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문의전화 070-7747-0396

순번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요일 및 시간	장소	수강료
1	팡팡노래교실	200명	화) 13:30-15:30	1층 공연장	* 3개월 3만원
2	한국무용교실	20명	목) 13:00-14:50(심화반)	4층 연습실	3개월 12만원
3		20명	목) 16:00-17:50(기초반)	4층 연습실	3개월 12만원
4	아랑고고장구	20명	수) 13:30-15:00	2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5	댄스스포츠	20명	화,목) 10:00-10: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6	라인댄스	20명	화,목) 11:00-11: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7	웰빙댄스	20명	월) 10:00-11:3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8	너도나도 방송댄스	20명	수) 10:00-11: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9	가곡교실	20명	수) 12:00-13:30	2층 연습실	* 3개월 15만원
10	수채화교실	10명	화) 10:00-11:50	4층 회의실	* 3개월 15만원
11	사진아카데미(초급반)	20명	목) 10:00-11:50	4층 회의실	* 4개월 12만원
12	트롯학교	20명	수) 13:00-14:50	4층 연습실	3개월 15만원

* 수강료 외 재료비, 반주비, 교재비 별도

* 일정 및 수강료의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예술회관

MECENAT & SUBSCRIPTION

부산의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을 메세나로 모십니다.



메세나 광장

MECENAT

『예술부산』은 메세나가 되어주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기반을 닦았습니다. 『예술부산』과 함께 부산의 예술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메세나를 찾습니다.

메세나 광장

방 성 빈 BNK부산은행 은행장

손 병 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예술부산』을 후원하는 광고주가 되시면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5조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드리며,

둘째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고,

셋째 월간으로 발간되는 『예술부산』을 보내드립니다.

정기구독

SUBSCRIPTION

월간 『예술부산』은 부산 시민과 예술문화인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서면 영광도서에서 해당 호를 구매할 수 있고(정가 5,000원)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술부산』 정기구독 신청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또는

이메일 artbusan1997@naver.com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하시고 **1년간 구독회비 30,000원**을
입금하시면 해당 호부터 보내드립니다.

부산은행 101-2024-8255-00

예금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은 여러 장르에 걸친 예술문화의 향기를 더욱 많은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 편집실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E-mail** artbusan1997@naver.com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우리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위 치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51층

방문 전 관람문의 (051-662-2559)

관람료는 무료이며, 토/일 ·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Giants

闘魂闘志

투혼투지



정가 5,000원



9 771978 974006
ISSN 1976-9741



BNK 가을야구 정기예금

- [가입금액]** 3백만원 이상 (원단위)
[가입대상] 제한없음(단, 금융기관 및 별도 협약 시금고는 제외)
[가입기간] 12개월
[적용금리] 최저 연 3.20% ~ 최고 연 3.80%
 (2024.03.20 현재, 세전, 최고이율은 기본이율 3.20%+우대이율 최대 0.60%p 모두 적용 시)
[우대이율항목] ① 가을야구 응원기원 우대 0.3%p(모든 고객 적용)
 ② 비대면 채널 가입 우대 0.1%p
 ③ 포스트시즌 진출우대 최대 0.1%p
 ④ 신규고객 우대(가입일 전일 기준 3년 이내 당행 예적금 가입이력 없는 고객) 0.1%p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특판 기간] 2024.03.20 ~ 2024.05.31(단, 한도 5천억원 소진 시 조기종료)
[예상수취이자액] 예치금액 1천만원 가정 적용금리 3.80%, 총 이자(세전) 380,000원)

BNK 가을야구 드림적금

- [가입금액]** 1만원 ~ 1백만원(만원단위)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가입기간] 12개월
[적용금리] 최저 연 4.00% ~ 최고 연 5.00%
 (2024.03.25 현재, 세전, 최고이율은 기본이율 4.00%+우대이율 최대 1.00%p 모두 적용 시)
[우대이율항목] ① 가을야구 우대(최종순위로 전고객지급)
 0.5%p(한국시리즈우승), 0.3%p(플레이오프 진출), 0.2%p(포스트시즌진출)
 ② 비대면 채널 가입 우대 0.1%p
 ③ 타격 또는 투수 최우수선수 배출 최대 0.2%p(투수,타자 각 0.1%p)
 ④ 신규고객 우대(가입일 전일 기준 3년 이내 당행 예적금 가입이력 없는 고객) 0.2%p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특판 기간] 2024.03.25 ~ 2024.05.31(단, 한도 1만자 소진 시 조기종료)
[예상수취이자액] 월납입액 5십만원 가정, 적용금리 5.00%, 총 이자(세전) 162,500원)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시에 지급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계약체결을 권유받거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588-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410 (심의일자 2024. 03. 19) | 유효기간 2024. 03. 20 ~ 2024. 05. 31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